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렇게만 하면 인생을 망친다

(How to Ruin Your Life · Ben Stein · 論文翻譯)

指導教授 朴 璟 蘭

朴 昭 暎

이 論文을 通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7 年 2月

朴昭暎의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通譯大學院

2007年 2月

How to Ruin Your Life

Ben Stein

So Young Park

(Supervised by Professor Kyung Ran Park)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February 2007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Korean-English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Ben Stein says that he has been studying how people ruin their lives since he was in elementary school. Stein, himself, seemingly has not ruined his own life. He graduated from Columbia University with honors, and from Yale Law School, where he was the class valedictorian. He went on to work as an attorney and taught at colleges and Pepperdine Law School. Stein was a speech writer for presidents Nixon and Ford, and then wrote a column for the Wall Street Journal. More recently, Stein became a successful actor and television writer. All this is not to mention that he has found the time to write seventeen books. Using ironic humor in this book, Stein passes on a wealth of tough advice.

How to Ruin Your Life is a powerful self-help tool in the form of a work of humor. It is sardonic advice, presented with tongue in cheek, explaining how people can “ruin” their lives. The essays cover topics such as “Convince Yourself That You’re All That Matters,” “Think the Worst of Everyone,” “Pour Salt on Those Wounds,” and “You Can Change People.” Seriously, though, to anyone who reads this book, it is an earnest warning against falling into traps of self-destructive behavior that can ruin any man or woman’s life. More than that, it comprises 35 steps that—if read and understood—provide a road map to making life work in the most effective way possible. It is humor and self-help all in one, delivered by Ben Stein, a man who has witnessed more than his share of people who did ruin their lives—as well as those whose lives have been wildly successful.

감사의 글

이 논문이 나오기까지 아낌없는 관심과 정성을 쏟아주시고 지도해주신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박경란 교수, 김재원 교수, 김원보 교수, 곁에서 열심히 응원해주신 부모님, 한영과 동기들, 음양으로 많은 도움을 준 허은태 씨, 그 외 모든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만 하면 인생을 망친다



차 례

감사의 말씀

시작하며 : 왜 실패가 중요할까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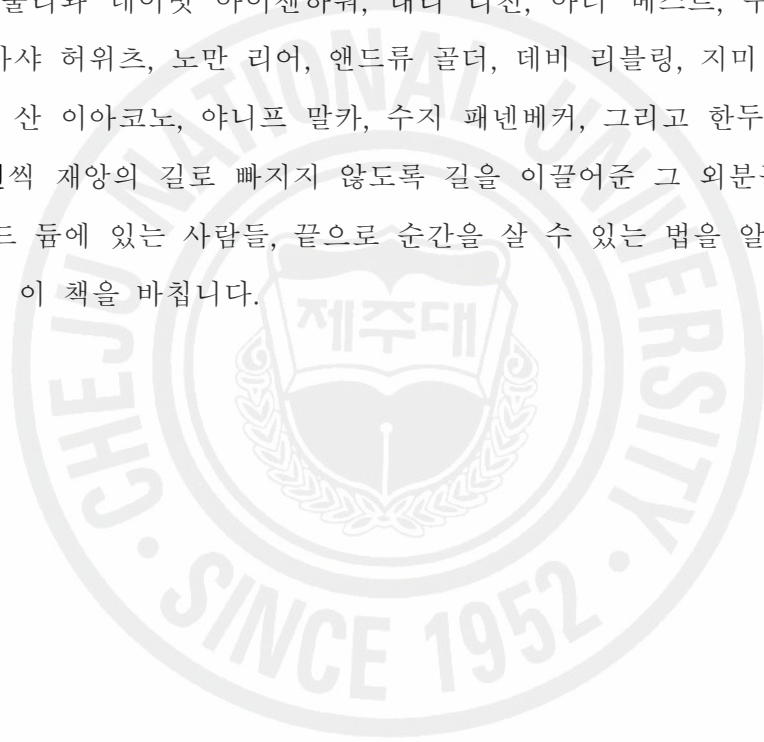
이렇게만 하면 인생을 망친다

1. 유용한 기술을 배우지 말라 1
2. 자기 수양하는 법을 배우지 말라 3
3. 당신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확신을 가져라 5
4. 잘못된 일에 대한 책임을 절대로 인정하지 말라 7
5. 빨리 그리고 자주 비판하라 9
6. 절대 고마워하지 말라 11
7. 당신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13
8. 모든 것을 시기하고 어떤 것에도 감사하지 말라 15
9. 완벽주의자가 되라 17
10. 지나치게 크게 생각하라 19
11. 삶의 소박한 것들을 즐기지 말라 20
12. 다른 사람들을 수시로 고쳐주라 21
13. 당신에게 잘 해주는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대하라 23
14. 당신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잘 해주라 25
15. 나쁜 무리들과 어울려라 26
16. 당신 주변 사람들이 초라함을 느끼게 하라 28
17. 철저히 계산하라 30
18. 마약과 술을 마음껏 애용하라 32

19. 저축은 하나도 하지 말라	35
20. 가족은 무시하라	38
21. 합리적이고 예의 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는 규칙도 당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41
22. 진실이란 상대적인 것, 없는 것처럼 살라	45
23. 그 외 누구도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라	47
24. 당신은 아무에게도 빚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라	49
25. 돈으로 도박을 하라	52
26. 애완동물은 한심한 사람들이나 갖는 것이다	54
27. 뒷정리를 하지 말라	56
28. 연장자나 경험자에게 존경심을 가질 필요 없다	58
29.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당신이 그들보다 더 신성한 존재임을 보여주라	60
30. 모든 것에 시비를 걸고 싸우라	63
31. 당신 방식대로 하라	65
32. 사람들에게서 가장 나쁜 점만 생각하라	67
33. 능력 이상으로 지출 하라	68
34. 잘난 척하라	70
35. 기회가 될 때마다 “그러게 내가 그랬잖아”라고 말하라	72
마치며	73
작가에 대해	75
참고문헌	77

감사의 글

하지 말아야 할 좋지 않은 예를 보여주시고 이 책을 쉽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신 모든 분들과, 아버지, 어머니, 내 아내 알렉스, 나의 절친한 친구 알 버트니, 없어서는 안 될 사랑스런 친구들 필 드무스, 폴 하이만, 가스 우드 박사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시드 도만, 왈디 플레크신티스키, 존 코인, 아람 바카쉬안, 줄리와 데이빗 아이젠하워, 래리 리친, 아더 베스트, 수잔 스갈렛, 밥 티렐, 마사 허위츠, 노만 리어, 앤드류 골더, 데이비 리블링, 지미 키멜, 메레디스 폭스, 산 이아코노, 야니프 말카, 수지 패넬베커, 그리고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씩 재앙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길을 이끌어준 그 외분들, 특히 말리부 포인트 뚝에 있는 사람들, 끝으로 순간을 살 수 있는 법을 알려준 팻 데이비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시작하며

왜 실패가 중요할까?

“성공이란 아버지를 백 명이나 있지만, 실패는 아무도 없는 고아와 같다.”라고 존 에프 케네디는 말했다. 아마 케네디 대통령이 1961년 쿠바 피그 베이 침공 실패를 두고 한 말이겠지만 소위 ‘~하는 법’으로 시작되는 책과 기사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이다. 어느 서점에 가든 성공하는 법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책들은 표지만 다를 뿐 거의 똑같은 조언들을 담고 있다.

반면 실패하는 법과 관련된 책이나 기사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만큼 실패한 사람들에게서도 배울 것이 많다는 점은 부모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실패란 성공으로 가는 사실상의 로드맵이다. 즉 그 반대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다. 빈곤과 외로움, 어둠, 절망으로 가는 길을 따라가 보라. 그리고 난 후 그와는 정반대의 길로 가면 결국 편안함과 좋은 벗, 팬클럽, 높은 명성, 높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승리로 이르는 길은 제각기 달랐지만 (어떤 이는 단순히 운이 좋거나 물려받기도 하고), 실패로 가는 길은 많은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도 내게는 무척 흥미로운 일이었다. 톨스토이의 말을 달리 표현해보면, 인생의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패하는 불행한 가족들은 모두가 서로 닮았다. 실패자들이 인생을 과멸시키기 위해 택하는 길과 방법들을 피할 수 있다면 대단한 성공을 이루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실패, 적어도 스스로에게 가하는 음울한 실패만은 확실하게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자멸이라는 육중하고 끈질긴 무게와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당신은 성공으로 가는 길 위에 있는 것이다.

독자들 중에는 내가 과연 이런 책을 쓸 자격이 있는지 물어볼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물어보는 것도 당연하다. 나는 천성적으로 어디를 가든, 특히 집에서도 관광객이다. 나는 내가 보는 것들을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

너지를 소비한다. 초등학교 (아마 그보다 더 일찍)부터 나는 실패한 사람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왔다. 약간은 강압적이지만 사랑스런 내 어머니 덕분에 스스로 실패자가 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게 된 나는 대수 시간이나 체육관에서 혹은 데이트, 직장, 노는 곳, 다시 말해 내가 어디를 가든 항상 실패자들이 하는 일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려고 노력했다. 물론 나보다 용감한 사람들도 있고, 더 잘생기고 똑똑하고 힘 센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나보다 더 많은 종류의 다양한 일들을 해보고 여러 다른 분야를 접해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아이비리그, 법조계, 금융계, 백악관(아, 얼마나 큰 실패자인가!), 할리우드, 학계 등 거의 모든 곳에서 실패자들을 보고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내게는 정말 많았다.

나는 이런 실패자들에게서, 그리고 실패로 가는 길에서 아주 많은 유사점들을 보았다. 바로 나의 이런 경험과 분석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책을 쓸 자격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번 읽어보라고 권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그렇듯이, 이 책에 나온 조언들은 저절로 와 닿아야 한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것들에 끌리지 않는다면 책을 그만 내려놓아라. (그렇게 하는 것도 실패자가 되려고 하는 당신의 노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왜 하필 서른다섯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일까? 또 그러면 안 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넓은 범주(가령 관계, 돈, 가족 등)에서 생각해 낼 수 있었던 것이 서른다섯 가지였기 때문이었다. “코를 뚫어라”와 같은 좀더 좁은 범주도 포함시킬 수 있었지만, 그것은 다른 종류의 것이다. 아니면 “회색이나 짙은 파란색 옷을 입어야 할 때 갈색 옷을 입어라”와 같은 다소 구체적인 것들도 포함시킬 수 있었지만 이런 것들 역시 다른 큰 범주에 속하는 것들이다.

만약 이 책을 다 읽어도 인생을 망치는 충분한 방법들을 찾지 못했다면 당신에게는 처음부터 그런 것들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즉,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제 서론은 그만하고, 여기에 나온 것들 중에는 당신 자신이나 알고 있

는 사람(그림, 그림자)의 모습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하면서 “이렇게만 하면 인생을 망친다”에 관한, 혹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해보겠다.

이런 원칙들을 따라가면 당신은 완벽한 실패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피해간다면 당신은 성취와 성공으로 가는 확실한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유용한 기술을 배우지 말라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진지하게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지 말라. 귀찮게 역사나 언어, 수학 등을 배우지 말라. 법이나 건축, 의학, 전기 계약과 같은 특별한 기술들도 개발하지 말라. 노는 시간을 아껴가며 공부를 하거나 수업에 충실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비웃어주고 당신은 옛날 영화나 보면서 빈둥거리라. (사실, 당신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진정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자주 비웃는 태도도 당신의 삶을 망치는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많이 이야기하기로 하자.) 다른 사람들이 병을 고치거나 양초를 만들고, 화장을 하고, 머리를 자르고, 재고 조사 등을 하면서 이 세상을 위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고자 노력할 때도, 거기에 필요한 전문 지식 등을 애써 배우려 하지 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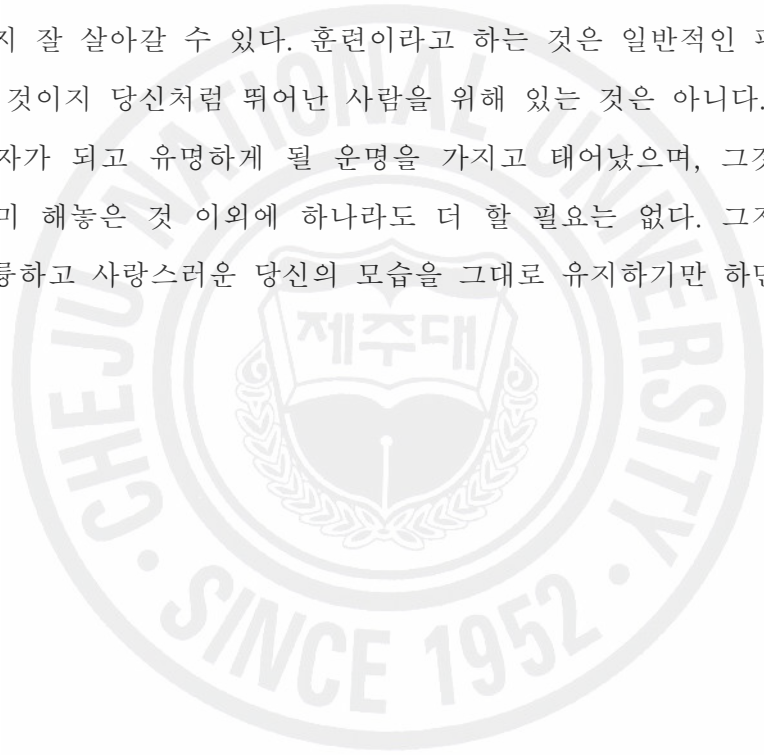
그렇다. 교육과 기술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한 열쇠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와 경험담이 산더미처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것들 중에서 당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기술이나 재능, 혹은 더 높은 학력을 얻게 되면 더 크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실도 당신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당신은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갖고 싶어 하는 좋은 것들은 다 얻게 될 것이다. 어느 면으로 보아도 당신은 정말 독특하고 특별하다. 당신은 당신이 갖고 있는 재치와 좋은 외모만으로도 힘들이지 않고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다. 당신은 정말 능수능란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도대체 레트 버틀러가 무슨 교육을 받았는가? 엘비스 프레슬리는 또 어떤가? 마돈나나 피디디 (요즘은 그의 이름이 무엇이든지 간에¹⁾) 가 대학원에 다니는 것도 본 적이 없다. 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 보라. 당신도 우연히 굴러들어오는 행운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만큼은 성공할 수 있

1) 역자 주 - 힙합가수, 2001년 자신의 이름을 Puff Daddy에서 P. Diddy로 개명했다가, 2006년 P. Diddy에서 Diddy로 다시 개명함

다. 기술을 가지고 성공하는 백 명 가운데 아흔 아홉 명이 아니라, 기술이 없어도 성공하는 십억 명 가운데 한 명을 골라서 당신의 삶을 망칠 수 있는 좋은 본보기로 삼아라.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걸 잊지 말라. 평범하고 세속적인 느낌이 드는 교육은 받지 말라. 당신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은 특별하며, 나는 당신이 그런 사실을 이해할 때까지 얼마든지 조언해 줄 것이다. 당신은 너무나 독특하기 때문에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하다. 당신은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당신처럼 뛰어난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부자가 되고 유명하게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그것을 위해서 당신이 이미 해놓은 것 이외에 하나라도 더 할 필요는 없다. 그저 편안하게 앉아서 훌륭하고 사랑스러운 당신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기만 하면 된다.



자기 수양하는 법을 배우지 말라

굽벙이가 되라. 당신이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나 신병 훈련소에 있는 게 아니잖은가! 당신은 느긋하고 여유만만한 사람이다. 쉬고 싶은 만큼 쉴 자격이 있다. 낮잠도 자야 한다. 그리고 방금 본 영화도 눈을 감고 다시 한 번 음미해보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밖에서 일하고 있을 때 이불 속에 있다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들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만 하는 바보들이라는 것이 당신 잘못은 아니다. 그러니 그냥 누워 있다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라. 또 일단 일어나면 아무 때나 자고 싶을 때 자라. 텔레비전에는 볼만한 영화들이 많이 있다. 게다가, ‘못 말리는 번디 가족(Married with Children)’, ‘심슨가족(The Simpson)’과 같은 프로그램들도 재방송되고 있다. 당신이 낮에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바트 심슨이 아빠인 호머 심슨을 찍소리도 못하게 만드는 장면을 백만 번 계속 되풀이하면서 보는 것 보다 더 유익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정말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다. 안 그런가? 더구나 당신은 올빼미형 인간인데, 굳이 새벽 3시 이전에 잘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아침에는 깨어있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침이란 농부를 위한 시간이고, 당신처럼 멋진 녀석이 젓소 우리를 청소하러 나갈 필요는 없다. 안 그런가?

그리고 먹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먹어라. 몸무게가 아무리 늘어도 당신은 멋지게 보인다. 당신은 원래 멋지니까. 당신이 패션 잡지에 나오는 날씬한 모델보다 몸무게가 몇 십 킬로그램 더 나간다고 해도 개의치 말라. 그것은 그 모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즉, 모델들이 거식증이 있는 것이다. 어쨌든 당신은 생각할 게 너무 많은데 뭘가를 먹으면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먹고 싶은 것은 언제든지 마음대로 먹어라. 그것은 당신의 권리다! 우리나라는 세계최고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국가이기에, 농장주들이 주는 스테이크나 치즈, 밀크셰이크 등을 매정하게 거절하는 것은 그들을 모욕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달리 할 일이 없을 때도 냉장고를 뒤져서 아무 것으로나 요기를 하는 것은 어떨까?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당신이 엄격한 경찰국가에 사는 것도 아니잖은가? 그저 남아 있는 케이크나 사과 파이를 먹어 치워버려라.

자, 이 말을 반드시 명심하라. “놀고 싶은데 억지로 일하지 말라.” 내키지 않으면 절대로 일하지 말라. 인생은 짧다. 그런데 왜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하면서 가까운 시간을 낭비해야하는가?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노예제도를 폐지한 개정 헌법 제 13조가 엄연히 있지 않은가! 당신이 노예처럼 일을 해야만 한다면, 남북전쟁에서 왜 사람들이 애써 피 흘리며 싸웠겠는가? 당신이 땀을 흘리며 굳이 고생을 해야 한다면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면서까지 고생한 것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잊어버려라.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은 그런 일을 하기에 너무나도 가까운 사람이다. 사실 당신은 이 지구상 그 어떤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존재이다. 당신에게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할 권리가 있다. 당신이 열심히 일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원하기만 하면 돈은 저절로 굴러 들어올 것이다.

당신은 수양을 특별히 하지 않더라도 진정으로 행복하고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꼭 껴안아 주고 싶은 큰 아기이기에 머리가 희끗해지고 배가 불룩 나온 중년이 되어도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당신을 사랑할 것이다.

당신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확신을 가져라

현실을 직시해 보라. 어떤 상황에서든 오로지 당신만이 중요한 사람이다. 내가 당신에게 이런 말을 맨 처음 해주는데, 사실 하느님께서 휴가를 가면서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당신 아내가 당신에게 쓰레기를 내다 버려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에 왜 신경을 쓰는가? 당신 남편이 일 년 만에 처음으로 집에서 만든 밥을 먹고 싶다고 하는 말에 왜 귀 기울이는가? 당신 부모님께서 당신이 한 달 동안 집안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말한들 어떠한가? 당신 룸메이트가 당신 양말이 너무 더러워서 그 냄새 때문에 한숨도 자지 못했다고 투덜거리어도 누가 상관하겠는가? 아무도 개의치 않는다. 오직 당신만이 중요한 존재이다!

왜 다른 사람들의 고민거리들을 듣는가? 당신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이다. 다른 사람의 부모님이 아프다고 해도, 그건 그들의 문제이다. 당신의 수학 시험을 도와주었던 사람이 당신에게 세차를 부탁한다면, 그건 그 바보 같은 사람이 참 딱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가면서도 그 사람들이 당신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라고, 언제든지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만일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아무도 당신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그들이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임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어쨌거나 살아 숨 쉬는 신에게 대화 상대라는 것이 필요할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어떤가?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디서 먹고 싶고, 어디로 휴가를 가고 싶고, 어디서 살고 싶은가 하는 점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한다. 항상 당신이 먼저이고,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그 점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평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모세가 특별히 열한 번째 계명을 가지고 환생(還生)했는데, 그 계명에 의하면 당신이 다음 백 년 동안 지배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상상하라. 그리고 전 세계 텔레비전에서 모세가 당신과 악수를 하고 그의 지팡이를 당신에게 건네주는 장면들이 나온다. 당신의 운명이 바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믿어야 한다. 매 순간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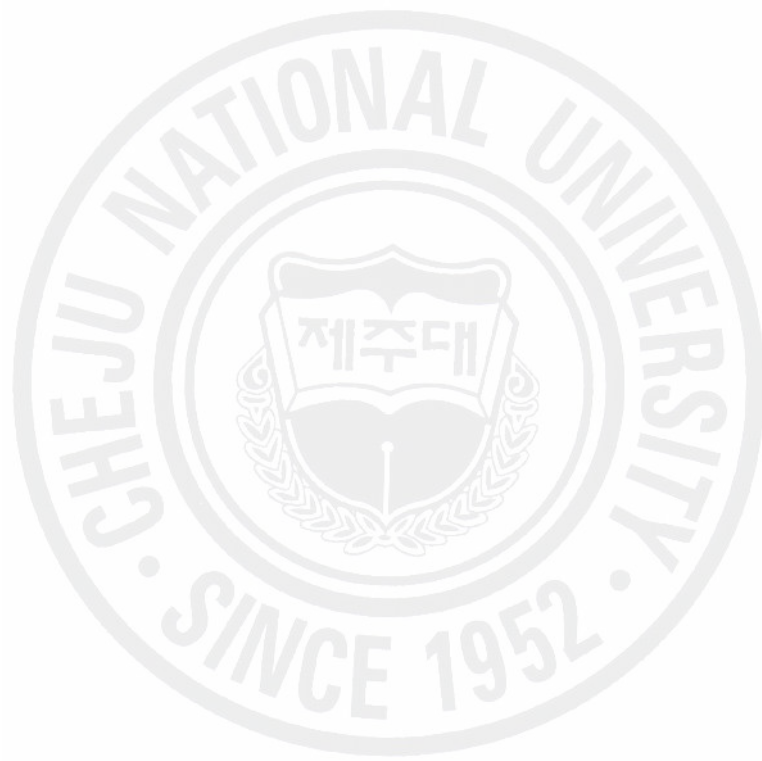
잘못된 일에 대한 책임을 절대로 인정하지 말라

다른 사람 탓을 하라. 일이 잘못된 것은 언제나 다른 누군가의 잘못이거나 단순히 운이 나빴기 때문이다. 대수 시험에 낙제를 했다고? 그건 분명히 선생님의 무능 때문이다. 그런데 다른 학생들은 합격했다고? 그건 그 학생들이 아침을 잘했기 때문이다. 당신이 거칠게 운전을 해서 교통 위반 딱지를 받았다고? 그건 당신이 그날 해야 할 일이 잔뜩 있었고, 더구나 그 전날 밤 늦게까지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주일 동안 제시 시간에 출근하지 않아서 직장에서 해고되었다고? 와, 도대체 누가 그렇게 일찍부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떤 일이든 당신이 일부러 잘못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투덜대는 것을 들어야하는 일은 고역이긴 하다.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다른 사람이 자신들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들어야했는가? 무함마드가 그런 불평을 들어야했나? 아니면 석가가 들어야했나? 그런데 왜 당신이 그런 불평을 들어야하는가?!) 간단히 말해서, 일이 제대로 되든지 되지 않든지 그것이 당신 책임은 아니다. 오직 다른 사람의 문제일 뿐이다. 당신 엄마가 당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욕이나 들으라고 키우지는 않았다. 이 세상에는 간단한 규칙이 하나 있다. 만약 어떤 일이 뜻대로 안 풀린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불운이고 당신은 그것에 대해 알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도 이제 알아야한다. 즉, 비난받는 것이 유쾌한 일은 아니라는 점, 더구나 당신이 비난받는 것은 결코 기분 좋은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당신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고 비난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전지전능한 하느님께서 당신을 자신의 대리자로서 공식 지명 했으니, 당신은 분명 이런 모든 것 위에 존재한다. 이 점은 분명하다.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하다. 당신은 어떤 일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난 받을 만큼 잘못된 것이 없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비난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잘 된 일에 대해서는 당신 덕이라고 주장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만 당신 탓

이 아니라고 부인하라. 이 점은 이미 알고 있겠지?)



빨리 그리고 자주 비판하라

항상 신랄한 비판가가 되도록 하라. 인정하자. 이 세상에는 제대로 불평을 하는 사람이 없다. 극단적일만큼 낙천적인 즐거움과 경박함이 너무 많다. 많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것들과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에는 잘못된 뭔가가 있다. 그런 잘못된 점을 먼저 찾아서 가장 큰 목소리로 비판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몇 가지 쉬운 예를 들어보자. 첫 출근하는 당신의 아내는 예쁘게 차려 입고 나설 것이다. 그런데 아내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모두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는가? 완벽하지는 않다는 것을 아내에게 말해주라. 아내 자신이 최고로 예쁘게 보이지 않아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못하게 하라. 아내는 살도 좀 찼을 것이다. 체중이 몇 킬로그램 늘어난 것 같다고 말해주라. 이런 모든 것들을 지적해주라. 결과적으로 당신은 건설적인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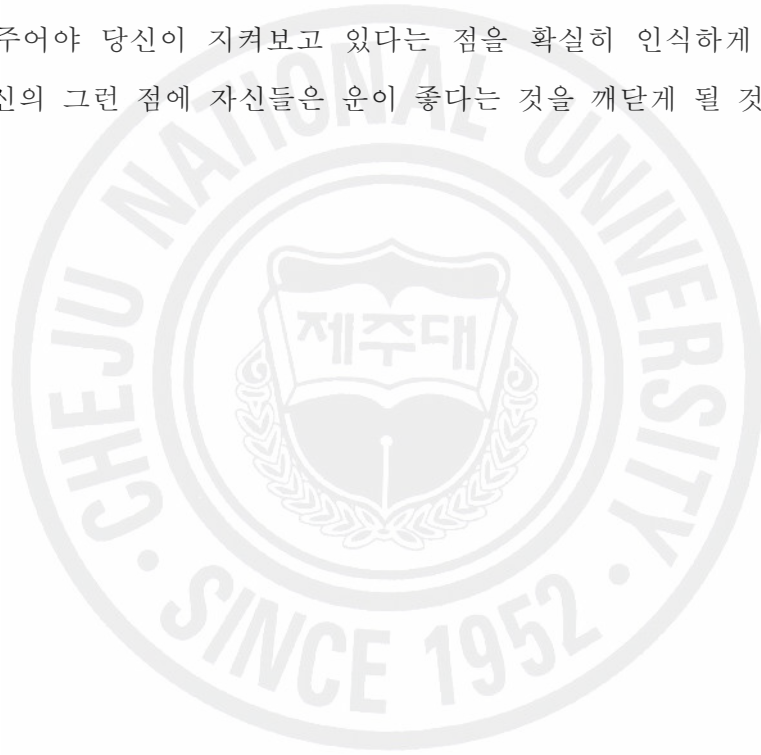
당신 남편이 토요일 하루 종일 앞마당 잔디를 깎으면서 보냈다고? 괜찮다. 오히려 마당을 좀 더 화사하게 보이기 위해 나무 몇 그루 더 심어보는 건 어떨까? 그 일을 남편에게 시키는 것이다. 남편이 편하게 앉아서 쉴 이유가 없다. 남편은 마당에서 일하도록 하고 당신은 텔레비전 앞에서 빈둥거리며 보내는 것이다. 당신 아들이 지난번 축구 시합에서 잘 뛰었다고? 좋다. 하지만, 당신이 보기에 쉬운 득점 찬스를 아들은 두 번이나 놓쳤다. 왜 책임을 회피하게 놔두는가? 왜 다른 사람들의 술수나 잘못을 쉽게 용서하는가? 당신 딸이 체조를 잘한다고? 글썄, 당신 딸이 그렇게 잘 한다면 왜 지난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했는가? 당신 딸이 뭔가를 잘못했을 것이다. 딸에게 당신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좌절감에 빠져 흐느껴 울 때까지 계속 비판하라. 그렇게 해야 다음번에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특별한 재능을 낭비하여 비판을 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가

도록 놔둔다면 세계 최고의 천부적 재능의 관찰자와 비평가로서의 소질을 당신이 갖고 있을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비판을 아끼면 아내, 남편, 아이, 직원들, 친구들, 또는 무엇이든시간에 모두 망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결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게으름피고 빈둥거리면서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다. 이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필요치 않다.

당신은 중요하고 완벽한 존재이기에 사람들은 당신이 하는 모든 말에 귀 기울여야한다. 이 세상은 어쨌든 엉망진창이지 않은가? 매번 움츠러들 정도로 비판을 해주어야 당신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그런 점에 자신들은 운이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6

절대 고마워하지 말라

정말이다! 당신이 왜 고마워해야하는가? 잠시 생각해 보자.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자유롭고 아름다운 나라에 살고 있다. 좋은 자동차와 에어컨 시설, 그리고 안락한 집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화가 날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 가령, 빌 게이츠가 당신보다 더 부자이지 않은가? 또 애슐리 쥬드가 당신보다 더 예쁘지 않은가?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당신보다 더 유명하지 않은가? 타이거 우즈의 골프실력이 당신보다 월등하지 않은가? 그런데 왜 당신이 고마워해야 한단 말인가? 당신에게는 속상해 할 것이 아주 많다.

수많은 감상주의자들은 조그만 호의에도 고마워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냉철한 현실주의자이다. 당신은 우리 사회 전체가 영망진창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사실은 몇 가지 예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 음악은 어떤가? 정말 끔찍하고, 우리 젊은이들의 뇌를 잡아먹고 있다. 십대들의 야한 옷차림은 어떤가? 물론 아이들은 좋아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당신이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도 않는다면 왜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하겠는가?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당신은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 즉, 무엇인가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생각하는 것이다. 그 외의 어떤 것이나 다른 사람은 중요치 않다.) 식료품가게 계산대의 점원을 기억하는가? 그 점원은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라는 감상적인 말로 당신의 아침을 사실상 망치는 것이다. 그런 역겨운 행동에 감사하는 일은 어리석은 것이다.

환경은 또 어떤가? 당신이 사는 곳은 그럭저럭 괜찮아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서쪽 지역에 있는 숲은 어떤가? 그곳엔 가뭄과 산불이 빈번하다. 바로 이곳 당신의 집에서도 그냥 아내의 요리나 남편의 목공일이 능숙한 면이 부족하지 않은가? 암, 그렇지. 이와 같이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데 고마움을

느낄 여지는 많지 않다. 그 대신 불평할 것은 아주 많다.

부모님께도 고마워하지 말라. 부모님이 당신에게 해 준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물론 당신과 함께 몇 년 동안 밤을 세워주기도 하셨을 것이다. 혹은 일어나고 싶지 않은데도 시간에 맞춰 학교에 보내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기도 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에게 차를 사주거나 당신이 원하는 방학 캠프 여행을 보내주기 위해 시간외 근무를 자청하거나 심지어는 두 가지 일을 하셨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부모라면 당연히 해주어야 하는 것들이다. 당신은 그들의 자식이다. 자식을 위해 희생을 하는 것은 기쁨이자 선물과도 같은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아침 여섯시에 일어나는 것이 기쁨이라거나 선물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게 핵심이라네, 친구! 당신은 특별하고 남들과는 다른 사람이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빛이 없지만, 사람들은 당신에게 어떤 식으로든 갚아야 할 것이 있다.

당신 자신에게 큰 친절을 베풀어라. 마음속에 고마움이라는 것이 결코 생각나지 않도록 하라. 이 세상은 아직 당신의 완벽함 앞에 완전히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 세상은 완벽한 곳이 되기엔 아직도 멀었다. 그런데 고마워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혹시 작지만 무언가에 고마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잊어버려라.

당신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당신의 지혜가 필요하다. 당신의 비판뿐만 아니라 당신의 지도 또한 필요하다. 이 사회가 얼마나 엉망인지 알고 있는가?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테러 사건을 보라. 만약 당신이 미 연방 수사국이나 중앙정보국을 운영했다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적어도 그곳 사람들이 당신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지혜의 조언들을 구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중동에서의 전쟁? 만약 아라파트와 샤론이 가자지구와 텔아비브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 것인지를 당신에게 물어온다면 전쟁도 쉽게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의 기아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당신은 남들이 모르는 해법을 갖고 있다. 그런데 바보 같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물어본 적이 있는가? 아니다. 거리에서 일어나는 범죄문제? 에이즈 바이러스가 심각할 정도로 퍼져나간다고? 종교적 원한? 불안한 주식시장과 만연한 금융사기? 왜일까? 세상 사람들이 당신에게 충분한 조언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재정이나 반테러, 종교간 그리고 종교 내 평화, 전염병 통제 등에 대해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앞서 비판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약간 다르다. 이것은 충고에 관한 것이다. 단순히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조언을 해주는 것이다. 누구 하나 당신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작업 진행 명령을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은 일들을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이처럼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당신 주변에서도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한 친구는 이혼을 하고 또 다른 친구는 체중이 늘어나고 있다. 다른 친구는 실직을 하고 집도 잃게 되었다. 아이는 학교 숙제를 다 끝낼 수가 없다. 왜냐고? (그 사람들은 당신이 아니라 바로 실패자들인 것이 큰 이유이고 그 이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지만 확실한 치료법이 하나있다. 그것은 바로 당신과 상담을 해서 당신의 조

언을 구하는 것이다. 당신은 이런 문제들을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사람들이 당신을 질투하고 있기 때문이며 당신만큼 영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이 먼저 조언을 해주면 안 되는 것은 또 아니다. 넓은 아량을 베풀기 위해서 당신은 사람들에게 당신 말에 즉시 귀 기울이고, 또 듣는 동안에도 메모 하라고 요구해야한다. 당신이 바로 그 결혼을 과정에서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또 어떻게 하면 실직한 사람이 다시 그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며, 학생의 실력을 확실하게 향상시켜 놓을 수 있는 사람도 바로 당신이기 때문이다.

만약 사람들이 너무 무능하여 물어보는 것조차도 못한다면, 당신이 직접 그들 앞에 나서서 무엇이 최선인지를 알려 주어야한다. 당신 인생에 사소한 결점이 있다고 해서 당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단 한순간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점은 사람들은 당신이 행동하는 대로가 아니라 당신이 말하는 대로 하는 법을 배워야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폭넓은 경험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마치 지상에 내려온 신과 같은 존재인 당신이 해야 할 의무인 것이다. 이 점을 명심하라. 조언을 할 때는 인색하지 말라. 될 수록 길고 상세히 설명을 하고,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라.

모든 것을 시기하고 어떤 것에도 감사하지 말라

모든 사람들을 시기하라. 가령 이웃 사람이 더 좋은 잔디 마당을 갖고 있다고 하자. 그 집주인이 물과 비료를 주면서 당신보다 더 열심히 잔디를 가꾸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잊어버려라. 그런 논리가 여기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지 그가 에메랄드빛의 초록색 잔디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시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또 다른 이웃 사람은 캐딜락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은 낡고 오래된 유고²⁾ 자동차를 갖고 있다. 그 사람이 더 많은 시간을 일하면서, 좀 더 나은 직장을 얻기 위해 밤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석사학위를 받았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말라. 그 사람이 더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시기를 유발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또 술집에서 당신 옆에 앉아 술 마시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가? 그에겐 아름다운 여자 친구가 생겼는데 당신의 아내는 조금씩 살이 찌고 있는 것을 보라(이 점을 꼭 지적해준다!). 당신 아내가 이 지구상에서 당신에게 가장 충직한 사람이라는 생각은 접어라. 아내가 수십 년 동안 당신에게 쏟은 헌신과 친절도 잊어라. 그런 것들은 그냥 잊어라. 당신 인생에 있어서 좋은 모든 것들은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은 갖고 있는데 당신은 갖지 못한 것들에만 집중하자.

어떤 아들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다. 당신이 빈둥거리는 동안 그 어머니는 아들과 몇 시간씩이나 숙제를 함께 하고 방과 후 활동을 했다는 것이 무슨 대수인가. 그 아이는 하버드에 진학했고 당신 아이는 고등학교만 제대로 졸업을 해도 행운인 것을. 이 밖에도 시기심을 느낄 이유는 아주 많다. 더군다나 당신도 알다시피 당신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실패자이기 때문에 더 그러하다.

그 사람의 아내가 당신 아내보다 몸매가 더 좋다. 물론 그 사람의 아내는 다이어트를 하느라고 항상 언짢은 기분으로 단 한마디도 상냥하게 하지 않는다. 그래도 그녀는 좋은 몸매를 갖고 있다. 이 점이 바로 훨씬 더 많은 시기심

2) 역자 주 - 유고(Yugo) : 전 유고슬라비아, 현 세르비아의 대기업인 자스타바(Zastava)에서 생산하는 소형자동차 자스타바 코랄(Zastava Koral)을 미국에서 일컫는 말

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이다. 그 사람의 남편이 당신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보니 처음부터 거의 모든 것이 시기의 대상이고 만족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 그 시기라는 길로 들어선 후에는 다신 돌아 나오지 않도록 명심하라. 당신은 계속 시기심에 불타다가 결국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시기심은 확실한 독약이다. 하루 종일 규칙적으로 복용을 하면 당신 인생에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파괴시켜 줄 것이다. 그러므로 매 분마다 적당한 양의 시기라는 독약을 복용하는 것을 잊지 말라! 그렇게 하면 햇볕이 따스한 날씨도 구름 낀 날씨로 바뀔 것이며, 당신이 평온할 때도 활력이 넘쳐흐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마치 당신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항상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기 그리드에 묶어두는 확실한 방법이다. 당신 근처에만 오면 사람들의 자동차 기어가 고장 나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한 가지 방법을 말하라면 그것은 바로 시기심을 갖는 것이다. 사실 충분한 시기심을 갖고 있다면 당신에게는 독약도 필요 없다.

완벽주의자가 되라

당신 삶에서는 모든 것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완벽해야한다. 조금이라도 흠잡을 데가 있다면 당신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럭저럭 하는 정도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완벽하게 될 때까지 자신을 고문하고 당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고문하라.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완벽해야한다는 이 강력한 지령(指令)을 잘 새겨두라. 그러면 당신은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완전히 마비되어서는 결국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가령, 당신 남편이 당신에게 집 바깥을 단장 수 있도록 정원 가꾸는 방법을 배우라고 제안했다고 하자. (비록 당신만이 진정으로 좋은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한다고 해도) 그렇게 나쁜 생각은 아니다. 하지만 당신이 키운 장미가 베르사이유 궁이나 백악관의 장미와 비교나 되겠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애써 정원을 가꿀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또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누군가에게 애도의 편지를 써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첫째, 이 세상은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당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점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당신의 애도 편지가 셰익스피어가 쓰는 것만큼 훌륭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왜 굳이 그런 일을 해야 하는가?

다음에 하는 말은 보석과 같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컴퓨터를 사기 전에 당신은 인터넷에서 가장 싸게 컴퓨터를 사야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라. 그리고 당신은 결국 아무것도 구매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새 차를 구입하려한다면, 차 구매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당신이 가장 싸게 차를 구입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돈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다. 연설문을 쓰고자 한다면, 케티즈버그 연설 이래 가장 멋진 연설문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당신 연설문이 그렇게 좋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냥 포기하는 것이 어떤가?

천재인 당신은 이제 알 것이다! 당신이 이런 방식으로 당신의 삶을 살아간다면 완벽하지 않는 한 당신은 절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고,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글썸……. 그래도 당신은 그냥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지나치게 크게 생각하라

거대하고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세우라. 당신 아들에게 어느 화창한 일요일 아침 낚시줄 던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에 만족하지 말라. 그 대신 혼자 틀어박혀서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더 크게 될 회사를 당신 차고에서 만들어낼 계획을 세우라. 그리고 낮잠을 자라. 아니면 술이나 한잔 하라.

여기 하나 더 있다. 남편이 잔디밭에 떨어진 나뭇잎 치우는 것을 도와주면서 오후의 산들바람을 즐기는 대신, 트럭 뒤에 티셔츠를 싣고 다니며 장사해서 수십억을 번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경제 잡지들을 읽어라. 그리고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큰 부자가 될 계획을 세우고 순간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은 피해라. 사무실에서 해야 할 일이나 쇼핑, 학교 숙제와 같은 당신 앞에 놓여 있는 일은 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당신이 하기에는 너무 보잘 것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세상의 승리자이고 정복자이다. 삶의 조그마한 성과와 즐거움은 당신에게는 너무 사소한 것들이다. 당신이 어떤 임무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절대 완수할 수 없도록 아주 세세하고 복잡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이 점은 다음 지침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삶의 소박한 것들을 즐기지 말라

삶의 작은 즐거움들은 무시하라. 아이의 미소 속에서 즐거움을 찾지 말라. 일몰도 즐기지 말라. 단순하지만 요리가 잘 된 음식에서도 즐거움을 찾지 말라. 당신에게는 모든 것이 정교하고, 복잡하며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가게 점원이 친절하게 미소 짓거나 친구가 등을 두들겨주는 것도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라. 큰 것을 쫓아라. 그리고 그것을 얻지 못한다면, 이 세상이 유일한 신을 또 속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괴로워하라.



다른 사람들을 수시로 고쳐주라

다음은 중요한 것이므로 메모를 해두자.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진심으로 그 사람들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라. 그렇다. 이것은 아마도 최고의 충고가 될 것이니, 절대 잊지 말라. 사람을 바꾸고 고치는 것과 같은 불가능한 일도 당신은 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으라.

일정한 직장도 못 찾고 매일 밤낮으로 술을 진탕 마시는 사람과 결혼하라. 그리고 그에게 술 마시지 말고 좋은 직장을 잡아서 계속 그 일을 하라고 분명히 말하라. 성가시게 잔소리하고 귀찮게 굴면서 술도 던져버리고, 그가 술집에 가면 물어버리라. 그러면 오래지 않아 그가 술이라곤 입에 대지도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그는 바로 당신을 위해 술을 끊을 것이며, 이것은 어느 남자도 하지 못했던 일, 즉, 여자가 바가지 굶는다고 술을 끊는 것이다.

아니면 양다리를 걸치면서 배신을 해 만나는 사람마다 상처를 입힌 여자와 함께 살아라. 그리고 그녀에게 한 사람에게만 충실하면 좋겠다고 말하라. 그러면 그녀는 당신을 위해서 옳고 단정한 행동을 할 것이다. 그녀가 바람피우는 것을 발견하면 노발대발하면서 그녀가 아끼는 시디를 던져버려라. 그러면 그녀는 오직 당신만을 위해서 새끼고양이처럼 가르랑거릴 것이다.

그렇다. 사람들은 바뀔 수 없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맞지 않는 말이다! 당신만이 다른 사람들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구조할 수 있는 첫 번째 인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이들이 모두 실패하는 것에도 당신은 성공할 수 있다. 인간의 특성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불변의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아니다! 그런 변화를 실제로 만들어낼 때까지 노력을 멈추지 말라. 그런 변화가 바로 눈앞에 보이기 때문이다. 피병을 부리며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회사 돈을 낭비하는 직원은 어떤가? 물론 그도 변할 것이다.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일삼고 금고에서 돈을 빼내가는 사업 파트

너는 어떤가? 솔직하고 따끔하게 이야기해 주라.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으며, 또 그런 변화는 당신에게는 당연한 것이다.

북한의 한 고문장에서 몇 년 동안 세뇌를 하고 정신을 바꾸어 놓는 약을 복용하는 것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술로 여겨지던 때가 있었지만 오래가지는 않았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진정으로 변한다. 오직 당신을 위해서 변하는 것이다.



당신에게 잘 해주는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대하라

사람들이 당신에게 잘해주는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들은 당신의 현관 앞에 있는 발 깔개와 같이 오직 당신이 밟고 지나가기 위해 존재한다. 그들이 당신에게 하는 말 중 들을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요컨대, 그 사람들은 당신의 하인들이다. 아니, 노예들이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언제나 당신에게 잘해줄 것이며 그들 생각이 맞다. 그들은 당신이 신과 같은 존재이며 자신들은 인생이라는 바다의 바닥에 있는 보잘것없는 조약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당신은 가장 강렬하고 섬세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당신이 이해해주어야 할 감정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마음 내킬 때 그냥 그 감정을 이용하고 함부로 다루고는 던져 버려라. 아즈텍의 신들이 자신들의 숭배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상상해보라. 숭배자들을 제물로 바치게 하고 그들이 살아 숨 쉬는 동안 심장을 오려내 가지 않았는가. 극적인 요소는 빼더라도, 바로 이것이 당신에게 잘 해주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이다.

직장에서 누군가가 당신에게 충직하고 일을 끝내기 위해 종종 야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봉급을 올려 받기 위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에게 혼자 알아서 하라고 말하라. (마치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듯) 당신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선생님이 있어도 고마워하지 말라. 학교생활 마지막 날에도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선생님을 지나쳐가라. 어떤 친구가 사랑을 잃고 상심해 있을 때 당신에게 귀기울여주었는데, 그 친구가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러 전화해도 받지 말라.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은 당신이 갖고 있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무기 중 하나이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이 점도 알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는 교회 성가대에 설교하고 있군!)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혹시 잊어버렸을지도 모르니 다음 사항을 잘 기억해 두라.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빚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당신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은.... 그들은 그냥 어리석은 자들이고 패배자들이다. 그 사람들은 당신이 마음대로 다루어도 되는 두들겨 맞은 똥개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사람들을 잘 대해야 한다는 옛말이나 황금률³⁾과 모든 쓰레기 같은 말들은 아주 오래된 책에서 나온 실없는 이야기들일 뿐이다. 그런 것들은 그냥 잊어버리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거나 유명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당신에게 잘 해줘야하는 것은 그들의 의무이고 그 사람들을 쓰레기처럼 대하는 것은 당신의 절대적인 권리이다.



3) 역자 주 - 황금률(Golden Rule) : 마태복음 VII:12, 누가복음 VI:31의 교훈. 흔히 'Do (to others) as you would be done by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로 요약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잘 해주라

그렇다. 그 사람들은 곧 바뀔 것이고 당신에게 진정으로 잘 해주기 시작할 것이다. 아마도.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서는 솔직해보자. 즉, 당신 내부에 어떤 이상한 욕구가 있어서 당신에게 형편없이 대하는 사람들에게 굴복하고 진정으로 잘 대해주라고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당신이 잘 대해주기만 하면 당신을 먼지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언젠가 당신의 삶을 매우 풍요롭게 해 줄 것이다. 그와 동시에 당신에게 잘해주었던 사람들은 무시하면 더 좋다.

당신이 미치도록 사랑했던 여자가 양다리를 걸쳤다고? 그녀에게 보석을 사 주라. 대리인이 거래를 성사시켜주겠다고 약속하고 나서 일을 진척시키지 못 했다고? 그런 것은 잊어버리라. 언젠가는 그가 당신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평면 컬러텔레비전을 하나 주라. 당신 인생에 전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잘 대해주는 것은 당신에게 큰 만족감을 가져다 줄 것이고 실제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다. 그러니 계속 그렇게 하라. 나쁜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 것도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것이 미스터리이긴 하지만 좋은 미스터리이다. 당신을 경멸하는 사람에게 존경심을 가지고 대할 때 당신은 행복한 건달이거나 아가씨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쁜 무리들과 어울려라

언제나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 습관을 가진 운 나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과 교체하라. 그렇다. 당신의 인생이 아무리 나쁘게 보여도, 주변에는 언제나 당신보다 더 술에 취한 사람, 돈을 더 적게 모은 사람, 더 많은 빚을 진 사람, 법적인 문제를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더 외로운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라. 그러면 이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언제나 우월감을 느끼도록 하라. 게다가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당신은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나쁜 버릇은 당신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지금부터는 기분이 안 좋을 때 당신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 당신 밑에서 당신을 밀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약물 남용자나 알코올 중독자, 혹은 거짓말쟁이나 허풍선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은 더욱 더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자랑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으면서 잘난 체하거나 허풍을 떠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 것도 정말 좋은 일이다. 절대로 진실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언제나 큰 도움이 된다. 또, 돈도 하나 없고, 심한 입 냄새가 나고, 머리도 더럽고, 복장도 지저분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다. 거기다가 암내까지 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하지만 그런 불쾌한 습관들이 결코 당신에게는 옮겨지지 않을 것이다. 절대 그렇지 못할 것이다. 대신 당신은 그런 우수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만으로 더 많은 성공을 이룰 수 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당신이 모든 인류의 최상위(最上位) 재판관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당신에게 뭐라고 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당신은 너무나 독특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의 위대함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은 마치 누구도 눈부신 태양

을 오랫동안 들여다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러므로 그런 인간쓰레기들을 늘 주변에 두면서도 당신이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지 확인해보라!



당신 주변 사람들이 초라함을 느끼게 하라

그렇다. 그들을 당황하고 부끄러워하게 하라. 간간이 그들을 무시하면서 당신의 가족, 직업, 자동차와,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최대한 자랑을 하라. 당신 이웃이 주식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았다면 그 사람에게 당신이 투자를 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말하여 주라. 만약 그 불쌍한 사람이 풀이 죽은 모습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당신은 백 만년이 지나도 그와 같은 실수는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라. 옆 탈의실에 있는 여자가 방금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하면, 그녀에게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지 말해주라.

당신의 비서가 계속 자동차가 고장이 난다고 불평하면, 당신 차는 전혀 이상이 없고 언제나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에게 간간이 상기시켜 주라. 그녀에게 느끼는 경멸감을 감추려하지 말라. 처음부터 그런 싸구려 차를 산 그녀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아주 능숙하게 해낼 수 있다. 동료가 풀이 죽어 의기소침해 있으면 불난 집에 부채질하라. 특히 돈과 관련이 있을 때는 더욱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면 정말로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무턱대고 당신 자랑을 늘어놓아라. 당신 삶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자랑하라. (역시, 돈에 중점을 두라. 그러면 그 사람에게 더욱 스트레스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당신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멸시할 것이라고 생각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신이 더 잘고 있지 않은가. (당신이 바로 걸어 다니는 하느님이고 모든 이들은 당신을 존경하기 위해 존재하는데, 그 누가 상관하겠는가.) 그렇게 행동하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심지어는 숭배하게 될 지도 모른다. 그들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에게 모욕을 받고 창피를 당하고 싶어 한다. 정말 그렇다! 사실 당신이 그런 사람들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특권을 누리는 셈이다. 그러기에 그

들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편이 나을 것이다!



철저히 계산하라

당신의 삶에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따져보고 그 하나하나에 모두 화를 내라. 그렇다. 당신과 관련된 경우만을 제외하고는 세상이 공평할 수 없다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다. (당신과 관련된 경우에는 더할 나위 없이 공평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평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 어떤 것이든 정당하게 화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암 병동에 어린 아이들이 있다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도 생각도 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음료수 바에 있는 웨이터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굴었다는 사실이다. 지금, 수단에서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가고 있다는 사실 당신이 전혀 신경 쓸 문제가 아니다. 당신 샐러드에 있는 양상추가 많은 게 문제다. 학교 다닐 때 당신보다 훨씬 공부를 잘 했던 그 친구는 어떤가? 아마 그는 틀림없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것이다. 그리고 왜 당신 누이의 집값만큼 당신 집값도 올라가지 않았느냐고? 그것은 바로 당신이 속았기 때문이고, 우리 둘 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은 날이고 당신도 건강함을 느끼는 날인데, 당신 주식 담당자가 지난 달 당신에게 해준 불쾌한 조언은 어떠했는가? 바로 당신이 속은 것이다! 이것은 질투심 보다 더 한 것이다. 당신은 지금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알아야 한다. 불같이 화를 내고 그 분노에 집착하라. 그리고 속고 있다는 느낌도 항상 갖도록 하라. 그러면 화를 내면서 하루를 보내는데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침착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지내는 것보다 훨씬 더 흥미 있는 일이다.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느낄 때는 실제이든 상상 속이든 누군가 당신을 모욕했던 일을 상기하라. 더블데이트를 하고 있을 때 친구가 자동차 앞좌석에 앉겠다고 우기던 일이 생각나는가? 아니면 당신이 샀던 주식을 팔자

마자 값이 올랐던 일을 생각해보라. 아마도 십년 전 공항에서 즐서고 있는데 누군가 당신 앞에서 새치기를 했던 일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보다 훨씬 더 성공한 오랜 대학 친구는 어떤가?

가만히 생각해보자. 비참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뻐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 놀랍지 않은가! 그런 비참한 일들의 목록은 끝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계속 철저히 따져보도록 하라. 그러면 당신이 항상 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분노가 계속 시뻘겍게 타서 당신의 배 속을 휘저으며 잠도 못 이루고,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서도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라. 화를 내는 것만으로도 보람을 느낄 것이고, 영원히 속고 있다는 느낌도 참 좋은 것이다.



마약과 술을 마음껏 애용하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다. 술 마시고, 마약으로 즐기면서 인생을 망치자. 마약과 술로 망가지지 않을 만큼 강하고 고귀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마약 남용과 지나친 음주 때문에 대스타와 억만장자의 삶이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모든 연예 잡지들을 보면 한 때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약물남용이나 지나친 음주 때문에 가난과 정신병, 요절하게 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 당신이 특별한 천재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 있는 정신병원들은 마약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또 약물과 알코올 중독으로 자신의 삶을 (그리고 가족들의 삶까지) 망쳐버린 사람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 지나친 약물과 알코올은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독이다.

그러나 당신은 다르다. 당신은 매일 술을 마셔대도 술 없이 못사는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약간의 술이 들어가면 당신은 더 재미있고, 더 예리하고, 더 멋지고, 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된다. 술을 마시면 당신의 타고난 지적 교양과 재치가 돋보이게 되는 것이다. 영화에 나오는 강렬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주인공, 예를 들면 “젓지 말고 흔든 것으로,”⁴⁾와 같은 대사를 하는 제임스 본드 같은 사람이 된다. 알코올은 당신에게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다. 마셔보니 좋지 않은가. 그리고 당신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술을 끊을 수 있다. 사실, 당신도 수십 번 끊어 보려고 했다. 물론, 술 때문에 배우자와 다투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소홀하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술이 그렇게 나쁜 것이 라면 왜 가는 곳마다 술을 팔겠는가? 왜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즐겁게 그 술을 마시는 장면이 나오겠는가? 유명인이 술을 잘 조절할 수 있으면 당신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은가, 나의 대단한 친구여.

자, 그럼 마약은 어떤가? 마리화나 담배, 마리화나, 엑스터시, 다른 마약들은

4) 역자 주 - 007시리즈 영화의 주인공 제임스본드(James Bond)는 술을 주문할 때, “마티니, 젓지 말고 흔들어서(Martini, shaken, not stirred)”라고 한다.

어떤가? 그것들이 애초 발명된 이유가 무엇인가? 세상이 당신의 위대함을 몰라줄 때 삶은 괴로운 것이 때문에, 당신이 그런 마약류를 사용하여 기분이 좋아져야만 견디어낼 수 있는 것이다. 다른 바보 같은 사람들과는 달라서 당신은 마약에 중독되지 않을 것이고, 그 모든 경고는 단지 어리석은 자들을 겁주기 위한 것들일 뿐이다.

주위를 보라. 미국 의사의 절반은 지금 처방약을 만드는데 취해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어디선가 그런 사실을 읽은 적이 있거나, 사무실에서 누군가가 말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약 회사들도 그런 약을 팔면서 수십억을 벌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은 크고 존경받는 공공 기업들이다. 그런데 그런 약이 어떻게 나쁠 수가 있겠는가? 당신을 진정시켜주거나 약간의 취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약을 의사에게서 처방받을 수 있다면, 의료기관이라는 곳을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모든 의료적 절차는 무시하고 간단히 대학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마리화나 일 온스를 사는 것은 어떨까? 아니면 일, 이 그램 정도? 이런 마약이 단순히 당신의 기분을 좋게 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아주 멋진 짓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영화에 나오는 가장 멋진 사람들은 마약을 한다. 당신 학교에서도 가장 멋진 아이들이 그렇게 한다. 왜 당신이라고 이처럼 기분 좋게 해주는 것, 게다가 최신 유행을 따라가는 그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되겠는가?

한 번 마약을 시작하면 나중에는 더 강한 약을 찾게 된다는 말 따위는 당신과 같은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당신은 의지가 매우 강하므로 마리화나에 의존하게 되어,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나중에는 더 강력한 헤로인 같은 것이 필요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할 필요도 없다. 사실, 마약 없이 하루를 보내려고 시도해보았을 때 꽤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적도 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했다면, 마약 같은 것들은 아주 오래 전에 던져 버릴 수도 있었다. 기억해두라. 바로 당신이 대장이다. 마약은 당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당신이 마약을 소유하는 것이지 마약이 당신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마약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꿔놓았던 간에 결코 당신을 통제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조금씩 기분이 나아지는 것을 느끼고 싶을 때는 망설이지 말고 약
병을 꺼내들라. 당신은 하루정도 휴식을 취할 자격이 있다. 그리고 매일 휴식
을 취해도 좋다.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을 떨리하는 것은 신이 내려준 당신의
권리이다. 그러므로 마약과 알코올이 당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렇지
않아야 할 이유는 또 무엇인가?), 친구여, 얼마든지 애용해 보라!



저축은 하나도 하지 말라

나를 따라해 보라. “나에게는 그런 시시한 저축 따위는 필요 없다!” 근검이라고? 그런 것은 겁쟁이나 얼간이들을 위한 것이다. 당신은 항상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주식 시장에서 크게 한 건 올리거나, 아니면 이용할 수 있는 ‘친구들’이 언제든지 있다. 당신에게 돈이라는 것은 주변에 있는 나무에 낮게 열려서 언제든지 딸 수 있는 과일과 같은 것이다. 당신의 인생에는 비 오는 날 같은 굶은 날이란 없을 것이다. 마술처럼 돈이 쏟아질 것이다. 더구나 돈의 흐름이 다소 느려진다는 먼 훗날의 일에 대해서도 당신은 다른 누구도 갖고 있지 않은 특별한 융통성을 갖고 있다. 지출을 조금 하든지 많이 하든지 당신은 언제나 잘 살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조금 밖에 없는 상황에 적응하려고 하면서 애를 먹는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다. 당신은 일 년에 백만 달러를 가지고도 살 수 있고, 또 전혀 돈이 없어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석가모니처럼 성스러운 사람이다. 사소한 돈 따위에 연연해할 사람이 전혀 아니다. 따라서 저축을 하고 안하고는 중요하지 않다. 당신은 바로 당신, 불멸의 반항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라. 저축이란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어떻게 인생을 즐길 줄 아는 특별한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돈 쓰기를 좋아한다. 뭔가 갖고 싶은 것이 있을 때는 참지 말고 어떻게 현금을 사용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돈을 쓰면서 즐겨야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은? 패배자들이다! 당신은 결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없다. 당신은 샴페인과 캐비아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것은 그 사람들의 문제일 뿐이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늙어서 퇴직을 한 후에도 살아가기 위해 계속 돈이 필요하게 될 그런 상황은 없을 것이다. 절대 직장을 잃지도 않을 것이며 대출 갚

는 것을 걱정하느라 밤잠을 설쳐야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집을 사려고 할부 계약금을 걸어야할 일도 절대 없을 것이다. 결코 그런 일은 없다. 언제나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아래서 순풍에 돛단배가 나아가는 것과 같다. 돈은 그냥 계속 쏟아져 들어온다. 불경기와 정리해고는 다른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지 당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혹시나 좋지 않은 일을 당하게 되면, 당신은 언제든지 저축을 한 바보 같은 사람을 겁주어 돈을 얻어낼 수 있다. 저축을 하는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을 왜 신이 만들어 놓았겠는가? 그것은 당신에게 돈을 빌려줄(사실은 그냥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돈을 빌리지도 빌려주지도 말라”⁵⁾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은 당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당신과 같은 훌륭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특권이다. 많은 사람들이 저축, 저축, 저축하면서 살아간다. 얼마나 따분한가!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이득이 될 게 무엇인가? 당나귀 똥이 차라리 낫다. 저축을 해서 그들이 어떤 이득을 보려면 당신과 같은 멋진 사람과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 그 돈을 사용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니 당신이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라. 당신은 저축 하지 말고, 나중에 그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기회를 주라.

당신이 “내가 필요할 때 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라고 물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당신처럼 매력이 넘치는 사람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폭우가 쏟아지면 어떻게 하지? 그래도 저축은 하지 말라. 그러면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당신에게 얼마나 멋진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을 구하러 달려오는 사람들이 다정한 옆집의 이웃이거나, 전처, 혹은 오랫동안 연락을 못하고 지내던 사촌들은 아니다.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달려올 사람들은 바로 거물들이다. 즉, 신용카드 회사, 대출회사, 은행, 보험사들이 당신이 그냥 웃으면서 악수만 해주면 기꺼이 납기일을 무기한으로 연장해 줄 것이다. 물론, 그 거물 회사들이 아무에게나 그렇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있어 돈 없는 삶이란 산들바람과 같은 것이다.

5) 셰익스피어의 ‘햄릿(Hamlet)’ 1막 3장(Act 1, sc3). “Neither a borrower nor a lender be / For loan oft loses both itself and friend (돈을 빌리지도 빌려주지도 말라 / 금전 대여는 돈과 친구를 다 잃기 쉬운 까닭이다)

친구나, 채권자, 당신 인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에게 일용할 양식이 조금 모자랄 때 당신을 도와줄 수 있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계속 소비하고 지출하면서 돈이 다 나가게 하라. 그러면 돈이 없어도 삶이 얼마나 수월한지 알게 될 것이다.

당신에게 돈은 마약과 알코올 같은 것이다. 돈이 있든 없던 잘 지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그런 것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은 무시하라

족쇄가 되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라. 이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들었던 말과는 정반대일 것이다. 하지만 사실이다. 적어도 당신에게는 그렇다. 가족이라고? 당신에게 가족이란 짐에 불과하다. 누가 가족이 필요하겠는가? 물론, 당신이 친구가 필요하거나 격려해줄 사람이 필요할 때면 가족은 언제든지 당신을 위해 곁에 있어준다 (하, 당신 같은 대단한 영웅이 그런 하찮은 것이 필요나 하겠는가!) 세상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잊어버려도 당신의 가족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준다. 그래서 뭐 어떻다는 것인가? 당신은 항상 구르는 돌, 아무런 구속 없이 자유분방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영화 ‘이지라이더’의 잭 니콜슨처럼. 또 당신은 영화 ‘와일드 원(The Wild One)’에 나오는 말론 브란도나 ‘매트릭스(The Matrix)’의 키아누 리브스같은 사람이다. 당신은 당신의 꿈과 환상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람이다. 가족이란 그런 당신에게 방해가 될 뿐이다.

물론 가족들이 당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을 때는 당신 주변에 있어주기를 원하지만, 가족이 당신을 필요로 할 때는 천만의 말씀이다. 공과금을 내거나 저녁 준비를 돕는 등의 책임감이라고? 그런 것은 신경 쓰지 말라. 제임스 본드가 공과금을 내거나 대수학 숙제를 도와줘야 한 적이 있었나? 그렇다. 당신과 같은 비밀 첩보요원·바람둥이·록 스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다. 더티 해리⁶⁾가 지불해야 할 청구서 더미들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아이들과 함께 풀어야 할 철자 숙제들이라도 있었는가? 아니다. 당신 아들이 승리의 골을 넣을 때는 당신 수준에 맞지 않지만 아들 경기를 보러 갈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당신 딸이 동창회 여왕으로 뽑힌다면 자리를 함께 해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 아들이나 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스스로

6) 역자 주 - 더티 해리(Dirty Harry) : 미국 형사 영화의 붐으로 탄생한 대표적인 영화로, 샌프란시스코 시경 강력계 형사 해리 캘러한(Harry Callahan)을 주인공으로 한 형사물. ‘더티 해리’는 수사에 대한 집념과 탈선도 불사하는 무모함 때문에 붙여진 해리형사의 별명을 일컫음.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인격을 제대로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 아이들이 당신을 필요로 할 때는 그냥 무시하고 아이들이 얼마나 크고 강하게 성장할 것인지 지켜보기만 하라.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무시를 한 것들이 나중에 오히려 무척 흐뭇하고 자랑스러울 것이다.)

그렇다. 당신이 아이들을 무시할 때, 그게 언제나 보기 좋았던 것은 아니다. 아이들이 울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것도 모두 성장하는 과정인 것이다. 만약 아이들이 당신만큼 영리하다면 (그 누가 그렇겠는가?) 스스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그것이 결국 자신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도 알게 될 것이다. 십대들은 혼자 있고 싶을 때면 언제든지 흐느끼기 마련이다. 스스로 해결하도록 놔두는 것이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기도 하다. 당신은 인생을 즐기고 전 세계를 구하고 늦잠이나 자면서 지내는 것이다. 그것이 결국에는 당신과 아이들 모두가 더 잘 살게 되는 방법이다.

당신의 부모님? 신경 쓰지 말라. 부모님은 정말 지겹다. 잔소리 하는 거 말고 해준 것이 무엇인가? 부모님이 하는 일들은 보통은 당신을 화나게 하고는 것이고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이다. 부모님은 전지전능한 당신에게 괜히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뛰어난 당신에게! 그렇다. 부모님은 당신에게 좋은 음식을 먹고, 충분한 잠을 자고, 저축도 하고, 조심하라고 이야기한다.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은 마치 강물에게 어떻게 흐르라고, 혹은 별에게 어떻게 반짝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당신이 어렸을 적에는 부모님이 뭔가 해주었을 것이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당신 엉덩이도 닦아 주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당신에게 인내심도 보여주었을 것이다. 당신이 혼자 있게 되었을 때도 부모님은 항상 당신 편에서 주실 분들이다. 하지만 그게 어떻다는 것인가? 그것은 부모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도대체 몇 번이나 이야기해야 알아들을 것인가? 부모님들은 당연히 자신의 책임을 다 한 것뿐이고, 이제는 더 크고 더 나은 것들을 위해 나아가야 할 때이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누군가가 당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을 망쳐놓았기 때문이다. 그 점을 잊지 말라. 다정하고 순진무구하고 악의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는 그 나이든 사람들? 어떤 심리학 이론을 보더라도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항상 부모에게 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가끔 약간이라도 이기적이라거나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언제나 세세하게 기억하지 못한 다고 하면, 그것은 누구의 잘못이겠는가? 그렇다. 부모님의 잘못이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그렇다, 부모님은 잊어라. 당신이 지금 삼십, 사십 세가 될 때까지 부모님을 아무에게도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당신의 부모님은 운이 좋은 것이다. 그리고 만약 부모님이 없어서 외로움을 느끼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그냥 술 한 잔 해버리라. 아니면 쇼핑이나 하라.

당신이 관심을 받아야 할 때 당신 배우자가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한다고? 또 집안에서 이것저것 해주기를 바란다고? 아내와 남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근사하게 보이면서 당신이 섹스를 하고 싶을 경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않은가! 그 외에는 차라리 감옥 교도관을 시키는 편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아내나 남편이 당신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시킨다면, 누가 그런 배우자를 필요로 하겠는가? 짝이란 당신이 무엇인가를 원할 때 그냥 옆에 있어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이다. 마치 편안한 의자처럼. 아내나 남편이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면 당신 인생에게 제외시켜버리라.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것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당신은 가족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그들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세상이라는 것은 아주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이 때문에 누구든지 집단 속의 구성원들과 어울려서가 아니라 혼자, 개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 특히 함께 어울리기 위해 당신이 노력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혼자가 낫다. 가족은 그냥 버려져, 순간적인 충동으로 그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당신을 위해 있어주기를 기대하라!

합리적이고 예의 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는 규칙도 당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모두 초월하자.

당신에게는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소득세 : 소득세는 처리하기가 참 성가신 것이다. 모든 서류들을 모아 살펴보고 분류하고 메모하고 나서는 돈을 더 내야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어떤 때는 아주 많은 돈을 내기도 한다. 그렇다. 바보들만이 소득세를 제대로 낸다. (레오나 헬슬리⁷⁾의 고귀한 삶을 보여준 좋은 예가 생각나지 않는다. 그는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나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당신도 그녀에게서 한 수 배워야한다) 왜 귀찮게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는가? 상당한 양의 일이다. 게다가 신고를 잘 하는 사람들이 수억 명은 된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한 명을 더 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국세청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당신처럼 평범하게 일만하는 사람들이다. 서류를 더 주면서 그들에게 짐을 더 줄 필요가 있겠는가?

실사 소득 신고를 했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해도 걱정하지 말라. 국세청에서는 결코 당신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혹시 잡아낸다 해도 그 사람들은 그냥 싱글싱글 웃으면서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말할 것이다. 국세청 사람들이 마음씨 좋고 상냥하며 어울리기 쉬운 사람들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들이 감사를 받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지 잘 알게 될 것이다. 특히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크게 한 번 웃고 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도 사무실 냉수기(冷水器) 주변에 모여 지저분한 농담을 하며 하루 종일을 보내고 싶어 하는 관료일 뿐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에게서 일을 덜어주고, 당신 스스로의 일도

7) 역자 주 - 레오나 헬슬리(Leona Helmsley) : 호텔 업계의 거물. 1989년 연방소득세 탈루로 18개월간 복역

덜어주면서 국세청 사람들이 당신에게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확인해 보라. (다시 말하지만, 만약 소득 신고를 한다고 해도 당신이 실제로 내야하는 금액을 모두 지불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 그저 마음 내키는 정도만 지불하라. 지불한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성가신 일이다. 그리고 당신 자신을 위해서도 약간은 남겨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다른 가없는 사람들이 알아서 내게 놔두라.)

운전 : 친구여, 당신은 도로의 주인이다. 당신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운전하라. 괴짜 같은 사람들만이 속도제한을 지키며 운전하는 법이다. 당신은 바쁜 사람이다. 그리고 당신은 경주용 차량 운전자가 되는 법도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는 사람이잖은가. 속도 제한은 할머니와 겁쟁이들이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도시 어느 곳에서나, 어느 고속도로에서나 당신은 두 눈을 감고도 시속 백삼십 킬로미터로 운전할 수 있다. 분명히 가끔씩은 그렇게 달리고 있을 것이다. 그래도 당신에게는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 당신 같은 최고의 운전자에게 자기 마음대로 아무 속도로 달리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이다.

안전벨트를 맨다고? 왜? 당신은 사고도 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벨트를 매면 어깨만 가려워진다. 게다가 비상시에, 가령 음료수를 마신다든지 뭔가를 사야할 때, 차에서 나와야하는데 벨트를 매고 있으면 오히려 차안에 **간히게** 되므로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글을 어디선가 읽기도 했다.

차선을 바꿀 때는 신호를 준다고?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은 다른 사람들이나 해야 할 일이지 당신이 할 일은 아니다. 차를 잘 정비하고 브레이크도 점검해 둔다고? 시간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당신은 바쁜 사람이다. 도로를 달리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걱정하도록 그냥 놔두라. 당신에게는 그 사람들에게 대해 걱정할 시간이 없다. 어쨌든 당신에게는 절대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 또 당신은 딱지도 한 번 받은 적이 없지 않은가?

흡연 : 이보게, 당신은 아이가 아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러니 흡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거나 당신의 혀와 간, 폐를 잡아먹는 암에 걸릴 수도 있다는 산더미 같은 자료들이 있다고 한들 무슨 소용인가? 존 웨인이 나오는 이차 세계 대전 영화를 보면 배우들이 모두 담배를 피우고 있지 않

았는가? 낡은 부츠처럼 얼마나 끈질기게 오래 살았는가? 물론 그렇다. 뿐만 아니라, 갱 영화를 보면 모두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 그러니 당신이라고 안 될 이유가 있겠는가? 그리고 삼촌이 평생 담배를 피워도 여든 여덟 살까지 살았다고 하는 사람도 만난 적이 있지 않은가? 조지 번스도 시가를 줄곧 피웠지만 백 살까지 살았다! 담배를 피우면 기분이 좋아진다. 단지 한모금만 피워도 그 풍부하고, 사랑스런 니코틴이 당신 폐와 피 속에 가득 차게 되면서 안전하고 든든한 느낌이 들도록 해준다. 담배를 깊이 들이마시면서 그것의 삼분의 일이 재로 타 들어가며 당신의 영원불멸인 심장과 폐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라!

미래계획 : 말도 안 된다. 당신은 되는 대로 사는 사람, 혹은 인형과 같은 사람이다. 그런 당신은 현재의 순간을 즐길 필요가 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넘어서 생각하려면 너무 많은 두뇌력이 요구된다. 게다가 이마에 주름만 더 깊어지게 할 뿐인데, 왜 귀찮게 그런 생각을 하겠는가? 정말로 계획이나 숫자를 적어 놓고 그것대로 살려고 노력한다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은 “바보”가 하는 일이고, 당신은 그런 바보가 아니다. 제임스 딘이 얼마 안 되는 돈이나 계획들을 종이에 적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클린트 이스트우드나 톰 크루주가 그런 것들을 적어 놓는 것을 본 적이 있나? 리즈 테일러나 줄리아 로버츠는 또 어떤가? 그런데 왜 당신은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가? 살아 숨쉬는 신이 그런 하찮은 계획들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당신이 미래를 움직이는 사람인데, 그런 것에 신경을 쓸 이유가 있겠는가? 미래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자기 집 마련 : 집을 장만해서 평생 동안 집세를 내지 않겠다고? 그것도 너무 성가신 일이다. 집을 사기 위해 관련된 모든 대출 서류들을 작성하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이다. 또 쇼핑도 해야 하고, 집을 싸서 이사도 가야한다. 하지만 마음씨 착한 요정이 마치 마술처럼 당신을 새 집으로 옮겨 놓아 줄 것이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도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도 하지 않아도 될 일이다. 당신도 이미 그 점은 알고 있긴 하지만, 미래의 일들은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기 싫은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책임감 갖기 : 당신이 빌린 것들을 돌려준다고? 왜? 그것들은 이제 당신 것이다! 게다가 누가 신경이나 쓰겠는가? 언제나 당신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줄 바보 같은 사람이 또 있을 텐데. 빌린 돈도 돌려준다고? 그럴 필요 없다! 도대체 돌려줘야 한다면 처음부터 무엇 때문에 돈을 빌리겠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신에게 무슨 소용인가? 모두가 자신이 갚아야 할 부채라면 당신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처지에 있게 될 것이다. 당신 같은 왕족에게는 ‘빌리다’와 같은 개념은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다. ‘나에게 주라’ 할 때처럼 ‘주다’, 혹은 ‘내가 가질게’처럼 ‘가지다’란 개념은 있다. 그런 단어들만이 유일한 개념들이고, 그렇게 갖는 사람 누구인지는 우리 모두 알고 있다. 그것은 바로 당신, 당신, 당신이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되갚아야 한다면 왜 빌리겠는가? 아니다. 그런 것은 생각도 하지 말라.

위생 : 다음과 같은 말도 꽤 괜찮은 것이다. ‘귀찮게 위생과 청결을 유지하려고 하지 말라.’ 당연히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는 암내, 구취, 퀴퀴한 담배 냄새, 술 냄새는 견디지 못한다. 그런 것들은 정말 역겹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당신에게서 나올 때는 마치 프랑스제 최고급 향수와 같은 냄새가 된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데이지 꽃처럼 신선하기를 기대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당신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아기나 그리스 신들이 옷을 차려입거나 늘 신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당신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이다. 당신은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보여도 상관없고, 그래도 사람들은 당신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행복해 할 것이다.

앞에서 말한 상황들에 대해서도 당신은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다른 이들에게도 당신 마음대로 아무런 이유로든 불평하고 비판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처음에 말한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다!

진실은 상대적인 것, 없는 것처럼 살라

당신이 내키지 않으면 진실을 말하지 말라. '진실'이란 약간은 당혹스러울 수 있는 것들을 '고백'해야 할 때, 당신을 에워싸고, 조종하며, 움아매는 한 가지 방법일 뿐이다. 중요한 진짜 진실이란 무엇이든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당신을 지켜주는 것이다. 당신에게 소용이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객관적인 진실이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실사 당신이 거짓말을 하다가 들킨다고 해도 누가 신경 쓰겠는가? 그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일 뿐이다. 그 누구도 당신에 대해 평가할 수 없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을 평가할 수 있다. 내 생각에는 찰리 맨슨이 예전에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다. 그렇지 않은가?

세금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실이란 별 볼일 없는 사람들에게나 적용되는 것이지 당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진실이란 시인이나 철학자들이 논할 수 있는 좋은 소재이다. 그러나 그 진실이 당신에게 방해가 된다면 당신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라. 훌륭한 국가들도 외교적 상황에서 사소한 거짓말들을 종종 한다.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서는 공격을 한다. 또 어떤 바보 같은 이는 자기가 스파이이면서도 아니라고 말한다. 국가가 이처럼 거짓말을 할 수 있는데, 왜 당신이라고 못하겠는가? 당신은 적어도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국가보다도 중요한 존재이지 않은가?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보았을 때, 당신은 무슨 공산 국가의 죄수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당신은 아무것도 자백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도록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정치인들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가? 사업가들은 거짓말을 안 하는가? 대머리 치료제나 그런류의 제품들을 선전하는 광고에서도 언제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가? 그러니 왜 당신이라고 못하겠는가? 도대체 거짓말이 흔해 빠진 이 세상에서 왜 당신이 언제나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 것인가? 만약 당신이 사람들의 믿음을 저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그 사람들의 문제이다. 당신은 이의 요정도 아니고 진실을

담당하는 그 누구도 아니다. 당신은 당신이다. 바로 살아 숨쉬는 신이다. 그리고 진실이란 당신의 황금빛 발아래 있는 먼지와 같은 것이다.

반면에, 진실을 말하는 것이 당신의 일에 도움이 된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진실을 말해야 한다.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해 보자. 모든 개념이나 원칙들은 당신이 사용하거나 무시하기 위해 존재하며, 이것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여하에 달려있다. 도움이 되지 않으면 가짜이다. 그리고 도움이 되면 매우 훌륭한 것이다. 참 간단하다. 왜냐하면 바로 당신이 우주의 중심에 있고 모든 창조물은 당신 주위를 천천히 회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 누구도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라

인간관계란 무익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인간관계가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책은 자신이 정리해놓은 명함철이라고 하는 어리석고도 쓸데없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또 당신도 언젠가 사람들이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잘 해주어야 한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은 터무니없는 말들이다. 당신이 더 잘 알고 있다. 당신은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해서도 되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잘 대해줘서 그들이 당신을 기억하게 되고 언젠가 당신이 일자리를 구하거나 아이를 학교에 입학시킬 때처럼 도움이 필요 할 때 당신 옆에 있어 줄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 사람들은 정확하게 당신이 원하는 그 시점에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해주고 싶어 할 것이다. 당신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든지 그 사람들은 당신을 위해 늘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인가를 필요로 할 때 당신이 도와주었는지 기억도 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렇게나 대했다고 당신에 대해 악감정을 갖지도 않을 것이다. 그와는 정반대이다.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당신을 도와주고 싶어 안달일 것이다. 사실, 당신은 알고 있는 사람 모두를 먼지처럼 (아니면 보잘것없고 죽어야 할 운명의 인간들처럼) 대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도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당신을 도와주고 싶어 할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이 연예계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마침 그쪽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촌이 있다. 그렇다고 그 사촌에게 친절하게 대하거나 예의를 갖출 필요는 없다. 무엇을 빌려도 돌려주지 말라. 그 사촌을 놀려대라. 그의 정치적, 종교적 믿음을 이용하여 그를 조롱하라. 당신이 그렇게 대하더라도 그 사촌은 당신을 위해 무엇이든 기꺼이 해줄 것이라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다!

아니면 의사인 친척이 있다고 해보자. 그 친척은 당신이 십오 년 쯤 앓고

있는 만성 기침(이런, 흡연이 이것과 무슨 관련이 있겠는가?)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아마도 고통 없이 담배를 끊을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을지 모른다. 따라서 당신이 할 일은 ... 그녀의 생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 친척을 위해서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필요 없다. 그녀의 아이들이나 남편에 대해서도 물어보지 말라. 모든 사람을 먼지처럼 대하라. 그렇게 해도 그 사람들은 당신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앞장에서 당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대하고 당신을 형편없이 대하는 사람들을 잘 대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는가? 이번 경우도 그와 관련된 또 다른 예이다.

더구나 당신과 같은 사람이 그런 따위의 도움이 왜 필요하거나 하겠는가? 제우스가 도움을 필요로 한 적이 있던가? 하나님의 대천사들이 그랬는가? 아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런 것은 필요 없다. 당신은 엄마 배 속에서부터 어떤 인간적인 교제나 도움이 없어도 되는 완벽한 존재로 태어났다. 인간관계라는 것도 가족처럼 단지 짐 가방에 불과하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단지 당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들은 당신을 도와줄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된다. 다른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대하라는 다른 규칙들과 약간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비슷하기도 하다. 그리고 인간관계는 아무리 소홀히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켜주기 위해 이 점을 다시 한 번 말해줄 필요가 있다.

당신은 아무에게도 빚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라

이런 생각을 해보라. 책임감이란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나 어울리는 것이다. 이 세상은 당신이 즐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당신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 어떤 것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당신 상사가 당신에게서 무엇인가를 원한다고? 참 안된 일이다. 왜 그 바보는 당신에게 월급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이 자기에게 빚을 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악착같이 돈이나 모으려고 하는 불쾌한 녀석! 오히려 당신이 그곳에 있어주어서, 또는 존재해주는 것만으로도 그 월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당신 배우자가 당신에게 일을 도와주기를 기대한다고? 가당치 않은 일이다. 당신도 나름대로의 계획들이 있다. (기억하라. 가족이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당신은 그 누구의 노예도 아니다. 당신은 언제든지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권리가 있다. 왜 배우자가 당신을 소유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인가? 앞에서 수정헌법 제13조가 어떻게 노예제도를 끝냈는지 설명하지 않았던가?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다시 한 번 말하겠다. 당신은 당신만의 욕구, 계획, 소망들이 있다. 당신은 그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빚진 것이 없다!

당신 엄마 친구였던 어떤 늙은 아줌마가 당신에게 뭔가를 원한다고? 당신 엄마가 학비를 벌면서 대학교를 마칠 수 있도록 일자리를 구해 준 그 사람이 아마도 그 아줌마일 것이라고? 이보게, 그게 어느 고대 역사와 같은 이야기인가? 누가 그 따위 것에 신경을 쓰겠는가? 그런 것들은 아주 오래 적 먼 옛날 이야기이고, 그게 전부일 뿐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당신에게는 오늘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보고 싶어 하던 중요한 축구경기도 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 따위는 짝 잊어버려라.

이 나라?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 싸우다 목숨을 바친 군인들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왜 그래야하는가? 그런 것도 잊어라. 그 군인들은 당신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더구나, 그런 일들은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난 일들이다. 그리고 그 군인들도 당신을 모른다. 당신을 위해 그렇게 싸운 것이 아니다. 그 군인들은 프랑스에서 얼어 죽고 싶어서, 그리고 굶주리면서 팔 다리가 잘려 나가는 것이 좋아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것 외에는 더 잘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싸운 것이다. 자신들이 유황도⁸⁾의 붉은 모래밭에 가기를 원했던 것이다. 일본의 지뢰밭으로 가서 산산 조각나 죽고 싶었던 것이다. 그 군인들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게다가, 그 대가로 돈도 받지 않았나? 그러므로 그 군인들과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총알이나 폭탄이 지나가는 길에 우연히 있었던 것은 그 군인들의 문제이다. 여하튼 다 끝난 일이다. 당신이 그 사람들에게 빚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싸우며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이보게나, 그것도 먼 나라 일이라네.

당신을 가르쳤던 선생님들? 선생님들이란 성가신 존재가 아니었나? 선생님들 때문에 당신은 그토록 부족한 점도 보충하지 못했다. 당신은 아직도 그들을 경멸하고 있다. 어떤 선생님들은 숙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나쁜 성적을 주기도 했다. 당신처럼 빛나는 불멸의 생명체가 방과 후 친구들과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내거나 텔레비전을 본 것 말고는 한 일이 없는 것처럼 대했다. 또 시험문제 답을 하나도 적지 못했다고 당신에게 낙제점을 주기도 했다. 왜 선생님들은 당신이 공부 이외에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것일까?

선생님들은 학생에 대한 책임감이나 사랑이 전혀 없다. 대부분의 바보 같은 사람들이 모르더라도 이 점을 당신은 잘 알고 있다. 또 선생님들은 단지 봉급이 두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나이든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당신을 속일 수는 없다. 그렇지 않은가? 사실은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그런 패배자들에게 당신은 결코 존경심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8) 역자 주 - 유황도(硫黃島, Iwo Jima) : 일본 도쿄에서 1200km 남쪽에 위치한 화산섬. 2차대전 당시 일본과 미국이 전쟁을 벌였던 '유화도전(battle of Iwo Jima)'으로 유명

그리고 그것이 바로 중요한 점이다. 이 세상은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 기관에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다른 사람들 모두가 당신에게 감사해야 한다! 나는 이 점에 대해서 계속 설명할 수도 있지만, 당신 같은 천재는 한 번 읽자마자 그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그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빚진 것이 없다.



돈으로 도박을 하라

주사위를 던져라!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라. 이 지구상에 걸어 다녔던 사람들 중에 당신이 가장 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 점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돈을 좀 걸어서 당신이 얼마나 행운아인지 알아보는 것이 어떤가? 라스베가스 와 애틀랜타 시티 같은 곳은 사실 대부분의 도박꾼들이 돈을 잃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인생의 평범한 규칙들이 당신과는 무관하다는 것도 당신은 잘 알고 있다. 평범한 도박꾼이나 큰 도박꾼은 당신이 아니라 단 하나의 중요한 이유 때문에 돈을 잃는 것이다! 당신은 완벽한 사람이다! 당신처럼 흠 잡을 데 없는 사람이 뭔가를 잃도록 하늘이 그냥 놔두겠는가? 몇 분, 몇 시간, 혹은 몇 년씩 돈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러나 충분히 많은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확실히 카드게임이나 경마, 스포츠 경기에서 엄청난 승자가 될 것이다. 당신은 이미 승자 중에 승자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러니 게임에서 큰 돈을 버는 것이라고 안 될 것이 뭐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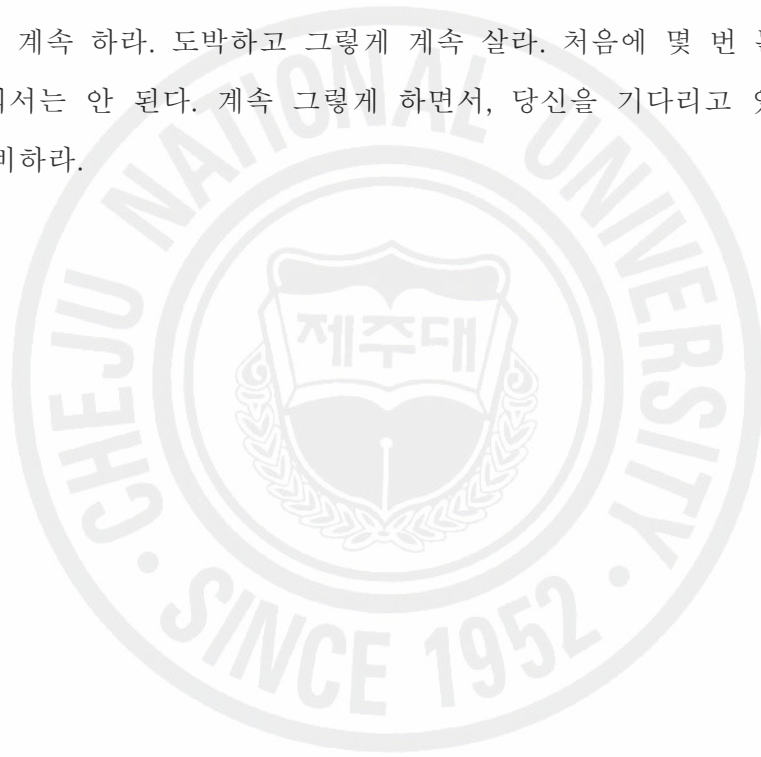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 다른 사람들은 도박으로 인생을 망치고 결국에는 자신과 가족 모두 가난으로 허덕이게 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도박을 해서 결국 돈을 번 사람을 보기란 아주 드문 일이다. 그러나 이런 사실들이 당신과 무슨 상관인가? 당신은 평범한 바보들에게 일어나는 일에 영향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많은 돈을 따서 엄청난 부자가 될 것이다. 결국 많은 돈을 따게 될 역사상 유일무이한 도박꾼이기 바로 당신이기 때문이다.

또 당신 친구들이 일과 저축 따위의 사소한 것들에 보잘것없는 노력을 들이며 넘어지고 힘들어 할 때도 당신의 이런 놀라운 재능덕분에 당신은 빛나는 승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당신 친구들은 땀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당신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당신은 산더미 같은 돈을 가져다 줄 도박 칩이나 던지면서 즐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박을 할 때는 꼭 룰렛 휠이나 크랩 노름으로만 국한하지 말라. 투기 주식에도 돈을 걸라. 상품 선물 거래에도 돈을 걸라. 당신이 이해도 못하는 아주 복잡한 옵션에도 투자를 하라. 이런 것들은 당신 같이 아주 운이 좋은 사람들이 제대로 돈을 벌 수 있도록 고안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큰 돈을 쏟아 부으라! 돈만 걸어놓고 당신은 달나라 여행 갈 준비나 하라!

(스포츠 경기, 특히 당신이 잘 모르는 경기에도 돈 거는 것을 잊지 말게. 당신의 직관은 아주 정확하기 때문에 경기 팀 이름만 들어도 당신은 바로 돈을 딸 수 있다!)

그러므로 계속 하라. 도박하고 그렇게 계속 살라. 처음에 몇 번 돈을 잃었다고 그만 뒤서는 안 된다. 계속 그렇게 하면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찬란한 인생을 준비하라.



애완동물은 한심한 사람들이나 갖는 것이다

애완동물은 골칫거리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라. 귀여운 조그마한 고양이가 당신의 벗이 되어주며 최악의 상황에서도 당신 곁을 지켜준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크고 따뜻하고, 털이 복슬복슬한 개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당신에게 든든함과 평화로움을 가져다주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도 들어보았을 것이다. 모든 것을 잃은 듯 한 때도 개와 고양이가 있어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말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친구가 있거나 하면) 또 개가 사람과 가장 친한 친구라는 진부한 이야기도 들어보았을 것이다.

약하고 온순한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결코 힘든 날이라는 것은 없다. 또 약해지거나 혼자라고 느낄 때도 없다. 당신은 언제나 힘이 넘치는 사람이다. 게다가, 그 개나 고양이는 먹이도 줘야 하고, 똥도 치워야 한다! 이런 일은 미친 것이다. 당신처럼 수준 높은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당신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이므로 누구의 뒤를 쫓아다니며 청소하는 일 따위는 하지 않는다. (심지어 당신은 당신이 있던 곳도 청소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용자금 내는 것을 도와주지도 못하고 책도 못 읽는 것들의 뒤를 쫓아다니며 당신이 청소를 해야 하겠는가? 그렇다고 당신이 책을 많이 읽는다는 말은 아니지만.)

또 개들은 언제나 쿵쿵거리고 다니면서 당신에게 너무 가깝게 다가온다. 옛날 로마의 황제들은 자신이 명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들이 개만지는 것을 금지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감히 당신을 건드리려는 털 달린 생물은 무엇이든 심하게 혼이 나야한다. 또 개와 고양이는 보살펴주어야 한다. 전에도 말을 했었는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말을 하겠다. 당신은 보살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숭배를 받아야 할 사람이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숭배해야 할 의무는 없는 사람이다.

따라서 약골들이나 애완동물을 갖게 놔두라. 당신에게는 그런 구질구질한
것들이 필요 없다.



뒷정리를 하지 말라

앞치마를 던져버려라. 전에도 말했지만, 다시 한 번 반복할 필요가 있겠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있던 곳을 깨끗이 청소해야할 만큼 당신은 완벽한 사람이다. 더러운 그릇, 냄비, 팬들이 집안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그냥 놔두라. 비록 당신이 혼자 살고 있어도, 누군가가 모두 치워줄 것이다. 더러운 옷들도 그냥 바닥에 놔두라. 그런 것 들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니다. 당신은 어느 농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아니지 않은가. 당신은 그것 외에도 해야 할 일들도 있고 세상 정복도 해야 한다. 당신도 ‘스타워즈’라는 영화를 보았을 것이다. 루크 스카이워커나 한 솔로가 옷이나 빨고 다리미질해서 잘 개어놓는 일을 했는가? 그 두 사람 중에 추바카가 사고를 당한 후 바닥 청소를 한 사람이 있었는가?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스칼렛이 자신을 낮추어 청소를 좀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상황이 얼마나 악화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이다. 상황이 괜찮았을 때는 스칼렛도 하인들이 더러운 일들을 대신 해주었다.

혹시 사람들이 당신에게 지저분한 굼벵이라고 불평을 하면 어떻게 할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을 위한 또 하나의 보석 같은 사실이 있다!) 당신은 스스로를 즐겁게 하기 위해 사는 것이다. 간단하고 분명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산다!) 그러니 당신은 그저 편하게 빈둥거리면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치우고 정리하게 놔두라. 만약 당신이 살고 있는 곳이 돼지우리처럼 보이고 그런 냄새가 나기 시작해서 살기에 끔찍한 곳이 된다면 다른 곳으로 이사가라. (그리고 다음에 살러 오는 사람을 위해 그곳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라.)

이런 논리는 감정적인 곤경이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적용된다. 만약 당신이 한 남자를 사랑하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직업도 버리고 당신과 함께 있기 위해 먼 곳까지 따라왔다면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그 사람에게 싫증

이 났다면, 전화 한 통도 없이 그냥 헤어져버리라. 혹은 당신이 파트너에게 함께 사업을 하자고 꼬드겨서 돈까지 빌리게 했다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서 당신 마음이 바뀌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할 문제이다. 당신은 벌여놓은 일에 대해 뒤치다꺼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것은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다.

인생에 있어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이란 매 순간 순간을 즐기는 것이다. 여기에는 실제이건 비유이건 마포결레나 쓰레받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즐겁게 당신 갈 길을 가라. 그것이 당신의 권리이다.



연장자나 경험자에게 존경심을 가질 필요 없다

백발을 존경한다고? 왜 그래야하는가?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은가. 더구나 당신은 연장자에 대한 존경은 시간 낭비라는 것도 날 때부터 알고 있다. 이것은 무엇인가를 할 때 최상의 방법은 당신 방식대로라는 원칙과도 연관이 있다. 전통이라고? 말도 안 된다. 오랜 연륜에서 나온 기술이라고? 역시 가당치도 않은 말이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도 모든 것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 기술을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거나 근면하다거나 하는 것 따위는 말도 안 된다. 장인정신이라고?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솜씨 좋은 장신정신이라고? 그게 뭐 어쨌다는 것인가. 당신은 마음만 먹었다 하면 이런 것쯤이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당신이 그런 마음을 먹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할 가치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백발과 굳은살은 당신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다. (당신이 아무리 나이를 먹더라도) 당신의 어린애 같은 젊음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무엇이든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이나 연륜에는 코웃음을 쳐버리라. 아무도 당신에게 가르쳐 줄 것이 없다. 괴짜 같은 늙은이도 젊었을 때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을 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시끄럽게 자동차 경적을 울려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혹은 늙은 할머니도 자신의 한 평생을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는데 바쳤기 때문에 깜짝 놀라게 해 인도 밖으로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달라질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은 당신이외에는 중요치 않으며 당신이 가장 편한 대로 가는 것이다. 당신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존경이 당신에게 방해가 된다면 그냥 무시하라. 더구나 나이 든 사람들은 대개 아주 나약하고 소심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당신은 그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밀쳐낼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 한다.

좋다. 이제 말은 충분히 했다. 연장자를 존경해야 한다는 그런 쓸데없는 것

에 신경 쓰지 말라. 그런 것이 당신에게 무슨 이득이 되겠는가? 당신은 결코
늙는 일이 없을 것이므로 인과응보 따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진
짜 인과응보가 무엇인지 당신은 알고 있지 않은가? 그것은 바로 무엇이든 당
신이 원하고 필요한 것을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을 말한다.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당신이 그들보다 더 신성한 존재임을 보여주라

후광을 감추지 말라. 당신이 가는 길에 있는 누군가가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구절을 이야기해주면서 그 사람은 악마이거나 바보라는 것을 분명히 알도록 해주라. (상상해보라!) 당신이 비판 받을 때는, 당신의 순교를 성인(聖人)의 것과 비교하는 성서의 기도문이나 구절을 인용하라. 친구 집에서 어떤 음식을 대접받을 때는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되는 도덕적인 이유를 들라. 그렇게 하면 당신은 그 식사를 준비한 사람들이 괜히 시간 낭비만 했다는 느낌과 자신들은 마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 같다는 자책감을 갖게 하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두 가지 타격을 받고나서 사람들은 비로소 당신 세계에서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여기게 될 것이다. 자신이 당신보다 못하고 느껴진다고 해서 당신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 위대한 예언자와 구제자들은 언제나 결국에는 박해를 받지 않았는가? 그것 자체만으로도 당신이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아니겠는가?

예배당 안에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 보다 더 큰 소리로 기도하라. 기도를 외국어로 하고 있다면 최대한 목소리를 크게 내어 당신이 라틴어나 히브리어나 어떤 외국어든 능통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라. 대화를 하는 도중에 테러와의 전쟁과 같은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당신은 매우 신앙이 깊고 경건한 사람이어서 사람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게 되는 전쟁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대화를 갑자기 중단해 버려라. 당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주식 시장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의 훌륭한 투자 솜씨에 대해 그다지 자랑하고 싶지 않을 때는 그냥 ‘지저분한 돈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라.

당신에게 돈을 빌려준 어떤 바보가 당신에게 그 돈을 갚으라고 하면, 그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해주라. 그리고 그 사람이 돈에 너무 집착하는 속물이라는 사실에 당신이 유감스러워 한다는 점에 대해서 몇 마디를 덧붙여주라. 그런 후 한숨을 쉬며 당신은 성경에 대해 생각하느라 너무 바쁜 나머지 몇 푼 안 되는 속세의 부채를 갚는 것 따위에는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고 말해주라.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 보며 ‘고리대금’이라는 말을 되뇌라.

이것은 결혼 생활을 파탄으로 이끄는 단순하면서도 훌륭한 방법이기도 하다. 마치 하룻밤사이에 당신이 배우자보다 정신적으로 더 우월해진 것처럼 행동하면서 당신 배우자가 계속 해서 당신을 더 사랑해주는 모습을 지켜보라.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이 세속적인 지상에서 가장 신성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이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특히 젊은이들에게 적용된다. 당신 주위의 윗사람들보다도 당신이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당신에게 어울리는 위대함을 향해 큰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될 것이다. 어머니가 요리를 해 주신 것도 그 요리를 만들기 위해 동물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 먹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다. 어머니가 실망하면서 얼굴이 붉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라.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시든지 벌어오는 돈에는 다른 사람들의 피땀이 묻어있다고 말하라. 또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은 살인자, 제국주의자들이며 당신이 그들보다 낫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라. 혹은 경멸스러워하는 얼굴 표정을 지으면서 그런 사실을 던지시 알려주라.

그렇다. 당신은 자신에게서 솟아나는 신성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만끽하라.

이런 방식은 당신 인생의 태반을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효과가 좋다. 아침에 깨어 당신에게 소시지 요리를 만들어주는 남편에게 “살아있는 동물의 살로 만든 음식은 먹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품위가 있다면 그런 것은 먹지 않겠지요?”라고 말해주라.

혹은 당신 아내가 출근준비를 하면서 화장을 하고 있을 때 아내가 쓰고 있는 립스틱은 사람을 예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고문당해 죽은 죄 없는 불쌍

한 토끼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라! 당신 이웃집 아들이 막 군 입대를 했다면, 그 이웃에게 다른 나라에 있는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훈련을 받는 곳에 들어간 아들이 있어서 정말 좋겠다고 말해주라. 잘난체하면서 남들 보다 신성하다는 듯이 행동하는 당신이 자신들을 욕하고 위에서 군림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분명 익숙한 일일 것이다. 어느 정도 계속 그렇게 하면서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그들의 새로운 신(神)인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숭배하는지 보라. 그러면 당신 얼굴에 웃음이 저절로 생겨날 것이다.



모든 것에 시비를 걸고 싸우라

무엇이든 싸울 가치가 있다. 당신 피 속에는 바이킹이나 줄루, 히브리 전사, 혹은 체로키 족의 저주가 흐르고 있다. 당신은 최후의 승리를 얻기 위해 무엇이든 용감히 맞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승리라는 목표를 위해 아무리 세세한 것도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당신은 아무리 사소한 것으로도 싸움을 시작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웨이터가 덜 구워진 고기를 가지고 왔는가? 그 웨이터를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웨이터에게 고함을 지르라. 그리고 식당 지배인에게도 고함을 치라. 당신 아내가 풀을 제대로 먹이지 않은 셔츠를 가져왔다고? 이것은 바로 전쟁을 뜻하는 것이다! 아내를 혼내고 세탁소 직원들을 고소하라.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어젯밤에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당신 앞에서 끼어들기를 했다고? 그냥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릴 필요 없다. 야구방망이를 들고 차에서 내려서는 방망이를 휘둘러라. 진짜 싸움이 무엇인지 보여주라.

패배자들과 겁쟁이들은 당신에게 “이보시오, 그건 싸울 가치가 없는 것이요”라고 말하려고 할 것이다. 그들에게는 그럴 수도 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약한 사람들 같은 이라고! 그러나 당신은 강하고 거친 사람이며 언제나 승리하는 사람이다. 또 당신은 대단한 위엄을 갖춘 사람이므로 조금이라도 그것을 모욕하는 것이 있으면 싸울 가치가 있는 것이다. 누군가 당신에 대해 아흔 아홉 개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을 말해 준다면 그 나중의 한 가지는 무시해야 한다고 대부분의 얼간이들은 말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당신은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결투의 권총을 꺼내들라.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 된다.

그리고 오랫동안 쌓아온 혈연관계나 친구관계 때문에 당신의 의지가 꺾여서는 안 된다.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당신이 모욕을 당했다면 죽을 때까지 끝까지 싸워야 한다. 당신 애인이 ‘낮에 종종’ 당신을 생각한다고 말했는가? 그것

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 그녀는 매 순간 순간 당신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한다. 그녀에게 불같이 화를 내라! 상사가 업무를 꽤 잘했다고 말했다고?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꽤 잘”이라고?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어떻게 감히!

당신을 화나게 하거나 짜증나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라. 그러면 분명히 그런 것들을 찾아내어 제대로 싸움을 시작할 수 있다. 계속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항상 준비 상태를 유지하라.

그러나 싸우기 위해 치러야 할 것들은 계산하지 말라. 가령, 진짜일 수도 있고 당신의 상상일 수도 있는 사소한 것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자문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고 당신 화가 풀릴 때까지 싸우라. 그래서 만약 일자리를 잃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다른 직업을 구하면 된다. 무심코 한 한 마디 때문에 당신 애인이나 배우자의 사랑을 잃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 물론 그렇다. 당신은 아무것도 그냥 지나쳐 가지 않는다.

싸움을 골라서 하겠다고? 아니다. 무엇이든 다 싸울 수 있는데 왜 골라야 한단 말인가!

당신 방식대로 하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당신은 당신만의 특별하고 독특한 방식대로 일을 할 수 있다. 나이 든 가수 프랭크 시나트라를 생각해보라. 그 사람도 자기 방식대로 일을 했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당신이 어떻게 해야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지, 혹은 처음 회사에 들어갈 때나 다른 동네로 이사 올 때는 잘난 척 뽐내지 말아야 한다는 등 어처구니없을 만큼 진부하고 어리석고 지겨운 말들이 있을 것이다. 하! 그런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나 적용되는 말이다. 당신은 그냥 당신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 세상 사람들이 당신에게 맞추어야 하는 것이지, 당신이 세상 사람들에게 맞출 필요는 없다.

그것이 그렇게 복잡한 일인가? 가령, 당신이 나처럼 할리우드에 산다고 해보자.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역할을 두고 오디션이 열리고 있으며 당신도 참가하게 되었다. 그렇더라도 당신은 시간을 맞춰 그곳에 도착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가고 싶을 때 가면 된다. 그리고 오디션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존중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에 당신이 얼굴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은 행운인 것이다. 깔끔하고 깨끗하게 보일 필요도 하나도 없다. 그냥 낡고 헐렁한 운동복을 걸쳐 입고 빈약하고 기름기 넘치는 머리로 얼굴 아래로 흘러내리도록 내버려 두라. 담배 한 가치 입에 대롱대롱 물고 들어가도 상관없다. 오히려 그게 더 멋있을 것이다.

만일 당신이 학교에 다니고 있고 수업시간에 잘 하고 싶다면, 선생님들이 하는 말에는 귀 기울이지 말라. 숙제로 내준 것도 읽어볼 필요 없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선생님이 당신 공부에 대해 거드름피우며 잔소리를 하면 버럭 화를 내라.

짜을 찾고 있다고? 혹시 우연히 나타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먼저처럼 대하라. 당신 자신에 대한 이야기만 늘어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물어보

지 말라.

직장에서는 상사를 비웃고 뒤에서든 앞에서든 그 상사를 조롱하라. 상사들은 자기 부하 직원들에게 조롱받는 것을 좋아한다. 더구나 당신 상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신경 쓸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무엇이든 당신 방식대로 해도 후회하거나 슬퍼할 필요 없다.

당신이 그렇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온 세상이 지켜보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자신들 방식을 따라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았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이런 것에 굴복하지 않을 그런 한 사람을 기다려 왔다. 그리고 바로 당신이 자기 멋대로 하는 메시아이다. 만세!



사람들에게서 가장 나쁜 점만 생각하라

항상 사람들의 나쁜 것들만 생각하라. 안될 것 없지 않은가? 그 사람들이 속으로는 당신을 속이지 못해 안달 나 있는 과립치한 사기꾼들이라는 것을 당신도 잘 알고 있다. 그 사람들은 풀 속에 숨어 당신을 잡아먹거나 당신 뒤로 몰래 다가가 해를 끼칠 기회만 호시탐탐 기다리는 뱀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왜 기회를 준단 말인가? 그들이 당신에게 잘못을 저지를 것이라고 미리 생각을 하고 당신이 먼저 공격하라. 그렇게 해도 의심 많고 냉소적이며 심술궂고 남을 못 믿는 당신의 행동들은 쉽게 정당화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 사람들을 모욕하고 거짓말을 해서 기회만 노리고 있던 그 사람들이 결국 본색을 드러내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바보 같은 사람들은 당신에게 사람들의 가장 좋은 점들을 기대하면 그 사람들이 결국 기대하는 것처럼 될 것이라고 말한다. 얼마나 어리석고 유치한 거짓말인가. 사람들은 최악의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결코 사실을 말하지도 않고 조금의 기회만 주어지더라도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 그리고 현명해져야 한다. 조금의 기회라도 주어서는 안 된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항상 의심하면서 언제든지 바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마치 공정하고 관대하며 신용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당신을 속이지 못할 것이다. 사실 그들은 당신의 긴장을 풀고 안전 불감증을 키우기 위해 가끔은 수년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당신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사람들이 당신에게 선의의 행동을 보여주면 그들과의 사이에 담을 쌓고, 당신의 왕국에 침입한 사람들에게 꿩꿩 꿩 꿩 기름을 부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아라.

능력 이상으로 지출하라

그렇게 살라. 이것은 당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간단할 것이다. 그리고 한 푼도 저축하지 말라는 규칙보다 훨씬 더 기본적인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 잡지에서 그것을 보았다면 당신은 그것을 가질 자격이 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당신도 그런 자동차를 가질 자격이 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이 하와이에 갔다면 당신도 거기에 갈 필요가 있다. 당신이 어느 정도의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신은 그 돈의 백오십 퍼센트를 쓸 자격이 있는 것이다. 은행에 단 돈 한 푼 없다는 (왜 당신이 저축을 해야 하는가?) 사실 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것을 살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신용카드가 무엇 때문에 있는가? 무이자 할부가 왜 있겠는가? 이런 것들은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즐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혹시 갚을 돈이 없다고 해도 걱정하지 말라. 다른 신용카드를 만들어 돈을 빌려서 갚으면 된다.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라 (하지만 그 돈을 갚을 필요는 없다). 당신이 사치스런 삶을 살고 싶어 한다면 이 세상 어디에 그렇게 해서 안 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당신 자신을 잘 알라. 당신은 이 모든 것을 가질 자격이 있다. 갚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없다는 이유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못한다. 그냥 사라.

당신은 선택받은 유일한 한 사람인데, 당신이 너무 지나치게 겸손하기 때문에 내가 이 점을 당신에게 계속 말해주어야 할 것 같다. 이 선택받은 한 사람은 마치 빵과 물고기의 기적처럼 언제나 마지막 순간에 돈이 나타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돈과 관련된 문제에는 기적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믿어도 좋다. 이것은 신용카드 청구서에 나온 계산이나 숫자들 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것이다.

그러니 어서 하던 대로 하라. 계속 그렇게 살면서 내일... 내일에 대해서 걱

정하라. 중요한 것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돈을 쓰고 저축은 한 푼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 이 모든 것들은 달콤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다.



잘난 척 하라

당신이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하며 세상 사람들은 당신의 재치 있는 말을 필요로 한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는 사람 때문에 당신의 재치가 묻어나는 독설을 뱉지 못해서는 안 된다. 어떤 친절한 바보가 당신에게 달콤한 말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 건방지게 응수를 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가 당신 옷이 멋있다고 하면 새 옷이 필요하다고 대답하라. 당신 헤어스타일이 멋있다고 하면 “나도 당신 헤어스타일이 멋있다고 말해줄 수 있으면 좋겠소만,” 하고 대답하고 마지막으로 이발소에 다녀온 것이 언제인지 물어보라. 당신 차가 너무 좋다고 칭찬해주면 그 사람에게 당신 차를 훔쳐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대답하라. 그리고 당신도 그 사람과 같은 차를 갖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부러워할 것이라고 덧붙이라.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조롱하라.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모두 비웃어주기를 바라고 있다. 누군가 자기가 미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하면 그에게 노예제도를 상기시켜주고, 그것도 역시 자랑스러운지 물어보라. 그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 자신의 분수를 알게 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보다 당신이 훨씬 더 성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

친척이 앞마당에 예쁜 종교 조각상을 갖다 놓았다면 중고품 할인 매장에서 산 것이라고 비꼬는 말을 하고, 그 친척에게 이런 조각상으로 장식하는 것은 그가 당신의 종교에 반대하는 것임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라. 그렇게 하면서 사실 당신은 교묘한 숨씨들을 뿔낼 수 있는 것이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 경멸감을 보여주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단절 시키고 당신이 얼마나 현명한 사람인지 과시할 수 있는 것이다.

‘영웅이란 비꼬는 말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틀린 말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맞을 수도 있지만, 당신에게는 분명히 틀린

말이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의 조롱과 야유를 들어야 한다. 그것도 지금 당장, 그리고 자주 들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잠자코 있어야 한다. 특히 당신과 함께 있을 때는 더욱 그래야 한다. 그러나 당신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욕하고 비웃으면서 편안함을 느껴야 한다.



기회가 될 때 마다 “그러게 내가 그랬잖아”라고 말하라

상처가 난 곳에 소금을 뿌려라. 아는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동정하지 말라. 당신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지 말라. 고통을 함께 하지 말라. 대신에 “그러게 내가 그랬잖아”라고 하고 당신이라면 그 사람에게 닥친 불행한 일 따위에 빠져들 만큼 어리석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라. 아무리 그들이 무고하고 상황이 불가피했다고 할지라도 당신이라면 그런 잘못을 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당신이 더 현명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이 다소 아플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자신들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보다 우월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는 것이 그들에게도 좋은 일이다. 당신이 그 사람들에게 스스로에 대해 초라하게 느끼게 할 때 그들은 당신을 경외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게 내가 그랬잖아”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최상의 방법이다.

(아마도 여러분은 여기 나온 간단한 서른다섯 가지 방법으로 당신의 인생을 망칠 수는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러게 내가 그렇게 말했잖은가. 그냥 농담이다!)

마치며

이제 거의 다 되었다. 당신이 이 책을 자세하게 읽고 모든 것들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다면 이제 당신은 당신 스스로 망가지는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을 파괴하는 이런 삶을 더욱 완벽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몇 가지 조그마한 생각들 (그리고 하나의 큰 생각)이 있다. 먼저, 모든 상황에서 자문해 보라. “내가 다른 사람들의 안녕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의 관점도 고려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하고 있다면 당신의 인생이 그렇게 빨리 망가지지는 않는다. “다 큰 아기처럼 내가 행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른처럼 행동하고 있는가?”도 물어보아야 한다. 만약 어른처럼 행동하고 있다면 그 역시 인생을 망치는 방법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집착하고, 이기적이고 아직 철들지 않은 아이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친절하거나 관대하게, 신중하게 혹은 상식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빗나가거나, 심지어는 인생을 성공으로 만드는 규칙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다.

좋다, 솔직히 말해보자. 어찌다가 우연히 이타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배려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있지만, 당신이 방심만 하지 않는다면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불신으로 무장하고 방어하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감정적으로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교육을 위해 저축해둬야 할 돈을 술마시고 마약을 하면서 탕진해 버리는 등 나태하고 무례하며 흥청망청 소비하는 생활을 하라. 그렇게 해서 당신의 미래와 주변 사람들의 생활, 그리고 사회 전체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신을 믿지 말라. 좀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신이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그렇게 알라. 그리고 당신이 바로 그 신이

다. 이 점은 이 작은 지침서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의 진정한 핵심이다. 당신이 가장 중요한 유일무이의 존재이고, 당신이 하는 모든 것들은 중요한 것이며, 인간이 만들었든지 자연적이든지 어떤 전통이나 법도 당신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수학이나 물리학의 법칙, 의학도 당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믿어라. 그러면 분명히 엉망진창이 된 당신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모든 인간의 운명을 조정한다고 믿어라.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의 결과도 당신이 결정할 수 있다고 믿어라. 이 세상은 하나의 커다란 영화이며 당신이 그 영화의 감독이라고 믿어라. 당신이 보스이고, 꼭두각시 조종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즉,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비평가, 독재자, 검열관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노동의 대가를 받는 수혜자이자 상속자인 것이다. 당신은 온갖 종류의 신들 중에서도 신이지만, 그렇다고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주어야 할 의무는 전혀 없다. 당신이 사랑이나 동정의 신은 아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껌질을 벗겨놓은 포도송이나 먹고 타인의 희생에서 즐거움을 찾지만, 그 대신에 뭔가를 해줄 필요는 전혀 없는, 하는 일 없이 그냥 빈둥거리는 신이다.

이렇게 할 때, 꼭 이렇게 할 때에 비로소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신의 가호가 있기를.

작가에 대하여

벤 스타인은 놀랄 만큼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먼저 에이미상을 일곱 번이나 수상한 게임 쇼 ‘벤 스타인의 돈을 따라(Win Ben Stein’s Money)’에서 그 자신도 에이미상을 수상한 진행자이다.

워싱턴 DC에서 태어났고 메릴랜드 주 실버 스프링에서 자랐다. 실버스타 스텔론, 칼 번스타인, 골디 혼, 코니 정과 같이 학교에 다녔다. (그들 중 이 책을 읽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스타인의 아버지는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공공정책 논평자인 허버트 스타인이다.

스타인은 콜롬비아 대학에서 1966년 경제학 학사를 받았다. 당시 스타인은 민권 운동에 참여하였고,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동등권 권리를 법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운동에 적극적이였다. 대학 졸업 후에는 미 상무부에서 경제학자로 수년간 근무했으며, 1970년대에는 예일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국선 변호인, 허위 과대광고 관련 법정 변호사로 일했고, 워싱턴 DC의 아메리칸 대학, 산타크루즈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영화와 텔레비전의 정치·사회적 내용들에 대하여 강의했으며, 페퍼딘 법대에서는 보안법에 관해 5년간 강의를 했다.

1973년에 스타인은 백악관에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을 위해 연설문을 쓰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제럴드 포드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까지도 그 일을 했다. 1974년 월스트리트 저널 칼럼니스트로 일하다가 1976년에는 할리우드로 옮겨가 극작가, 텔레비전 작가, 소설가, 칼럼니스트로 왕성한 활동을 벌였다. 노르만 리어의 탄담/티에이티(Tandem/TAT) 프로덕션에서 근무할 때는 컬트 히트작 ‘펀우드 투나잇(Fernwood 2Night)’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열 일곱 권의 책을 저술했으며, 그 중에는 할리우드에서 보낸 첫 해를 일기형식으로 써서 많은 사랑을 받은 책과 할리우드의 정치적 성향을 분석한 ‘드림즈(DREAMZ)’, 로스앤젤레스의 마약 중독과 야망에 대한 이야기 ‘해질녘 대로에

서의 경치(The View from Sunset Boulevard)', 영화 '더부스트(The Boost)'의 배경이 된 '루드스(Ludes)'가 대표적이다. 그 외에도 '광부의 오두막 논리(Bunkhouse Logic)'라는 금융관련 서적, 경제적 성공을 위한 가이드 '금융 여행(Financial Passages)'이 있으며, 최근에는 어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시행착오와 성공담을 담은 책 '토미와 나(Tommy and Me)'를 썼다.

또 스타인은 미국 에이비씨 방송국의 미니시리즈 '아메리카(Amerika)'의 개요 작가이며, 텔레비전 영화 '미시시피에서의 살인(Murder in Mississippi)'의 개요 작가이자 프로듀서이다. 이 프로그램은 순직한 민권 운동가 굿맨(Goodman), 채니(Chaney), 슈베너(Schwerner)에 관한 이야기이다.

스타인은 특히 '바론스(Barron's)'에 금융관련 사기와 금융에 있어서 윤리적 의무에 관한 많은 글을 썼고, 그 외에도 밀켄/드렉셀(Milken/Drexel) 사기에 관한 책 '절도 면허(A License to Steal)'도 저술했다. 뿐만 아니라 '더 스트리트(TheStreet.com)'이라고 하는 금융관련 웹사이트와 뉴욕매거진, 뉴욕 타임스 매거진 등 다수의 일간지, 주간지에 글을 게재하고 있다.

1986년에는 스타인 그 자신이 직접 배우가 되기도 했다. '페리스 불러의 휴일(Ferris Bueller's Day Off)'이라는 고전 코미디 히트작에서는 단조로운 목소리를 내는 선생님 역할을 했다. '케빈은 열두 살(The Wonder Years)'에서도 3년 동안 선생님 역할을 했으며, 그 외에도 약 30편의 영화와 TV 시리즈에 출연하였다.

현재 스타인은 아내 알렉산드라와 아들 토머스, 많은 개와 고양이들과 함께 캘리포니아 비벌리 힐스에 살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와 미국 전역에 걸쳐 동물보호와 아동보호를 위한 자선활동에 쓰일 기금을 모금하는데 매우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참고 문헌

- 김재현(1995), 「번역의 원리와 실제」, 한신문화사
- 김효중(1998), 「번역학」, 민음사
- 원영희(2003), 「원영희 교수의 일급 번역교실」, 한언
- 유영난(1991), 「번역이란 무엇인가」, 태학사
- 이근달(1998), 「영문번역의 노하우」, 시사영어사
- 지정숙(1997), 「번역의 기초이론」, 한국번역연구원
- 최정화(1993), 「통역과 번역을 제대로 하려면」, 신문사
- 최정화(2001), 「최정화 교수의 통역 번역 노하우」, 넥서스
- 한규만(2005), 「영한 번역의 이론과 실제」, 울산대학교 출판부
- www.wikipedia.org